

## 韓末·日帝下 韓相龍의 기업활동 연구

김 명 수

---

본고는 韓末과 日帝下 전기간에 걸쳐서 한국 실업계의 거물로 주목받았던 한상룡(1880~1947)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1903년 漢城銀行(現 조흥은행)을 시작으로 朝鮮生命保險(株), 朝鮮信託(株) 등 주로 금융관련 분야에서 전문경영자로서 그 입지를 굳힌 인물이었다. 한상룡의 성공은 李完用, 李允用, 韓昌洙를 중심으로 한 집안배경과 총독부의 강력한 후원으로 가능하였으며, 그 때문에 일제하 財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20년 3월에 한국인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朝鮮實業俱樂部를 설립한 그는, 이를 통해 총독부와 韓日人 자본가들을 매개하는 중심 인물을 자처하였다. 그는 金季洙, 朴興植, 張稷相, 閔大植 등과 달리 大資本家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근대기업가의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독특한 유형으로서 분류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기업가의 부침을 검토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일제하 한국인 자본가·기업가의 다양한 존재형태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I. 序 言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 및 서양세력과의 국교통상에 적극 나섰다. 1897년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황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우위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일본은, 조선의 자주적인 근대화 노력을 좌절시키고, 결국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국내외 상황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격동의 사회·경제적 지형을 만들어 냈으며, 이에 국내의 여러 세력들도 자신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金明洙, 「韓末·日帝下 韓相龍의 企業活動과 政治經濟認識」(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지위와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반응하였다. 이들의 대응은 '지주적 코스의 근대화론'과 '농민적 코스의 근대화론'으로 대별되었는데, 그 후 전자의 노선만이 日帝의 침략과정에서 제도로 정착되어, 일제 강점기에 지주·부르주아지 중심의 식민 지정책이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sup>1)</sup>

일제하의 부르주아지와 지주는 계급적인 속성상 식민 통치에 순응하며 성장을 도모하였고, 해방 후 남한 체제 성립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학계에서는 민족 분단의 역사적 배경을 究明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특히 일제하에 존재하였던 자본가들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존재양태와 동향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내었으며,<sup>2)</sup> 그들이 소유·경영하였던 개별 회사에 대한 연구도 축적되었다.<sup>3)</sup>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개별 기업가들의 성장과정과 기업활동을 그들의 사상적 동향과 함께 총체적으로 다루는 미시적인 접근에는 다소 소홀하였다.<sup>4)</sup>

본고는 先學들의 연구에 기대어 일제하 최고의 금융기업가로 활약하였던 韓相龍(1880~1947)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연구사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한다. 韓相龍은 1903년에 公立漢城銀行(자본금 3만 5,000원)의 우총무로 실업계에 투신한 이후 1910년에는 그 은행의 專務取締役に 취임하였고, 1923년에는 앞서 1920년에 자본금을 600만 원으로 증자하여 일제하 최대의 민간은행이 된 바 있던 (株)漢城銀行의 頭取(은행장)가 되었다. 그는 1921년에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를 설립하여 일제 말까지 사장을 지냈고, 1932년 말에 설립된 朝鮮信託株式會社의 탄생에도 건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일제하에 은행업·보험업·신탁업에서 두루 활동한 금융계의 거물로서 재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1920년 3월에는 朝鮮實業俱樂部라는 민간경제단체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총독부와 한국인 자본가·기업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이 밖에도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약 300여 개의 근대기업 설립에 두루 관여하였다.<sup>5)</sup> 그가 '일본 근대기업의 아버지', '일본 자본주의의 컨설턴트'로 불렸던 滋澤榮一(1840~1931)<sup>6)</sup>에 비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1) 金容燮 [58].

2) 일제하 자본가층의 존재양태와 동향에 대해서는 樞村秀樹 [115], 이한구 [84], 주익중 [101], 허수열 [105], 전우용 [92], 오미일 [76].

3) 趙濤濤 [97], 高承濟 [48], 黃明水 [109], 주익중 [102], 김동운 [53], 오진석 [77], 洪性讚 [106].

4) McNamara [123], 오진석 [77], 洪性讚 [106].

5) "日帝 經濟침략 秘話", 「週刊朝鮮」, 1971. 5. 9, 15~18쪽(韓翼敎 [3] 요약 번역).

6) 滋澤榮一은 제일은행장을 42년(1875. 8~1916. 7) 동안 역임하면서 무려 500여 개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설립에 관여한 인물이다. 그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日本經濟史研究會 編 [121], 屋喬雄 [119], 井上宏生 [120] 참조.

이런 이유로 그 동안 학계에서는 韓相龍에 주목하여 상당한 연구성과를 냈다. 그의 구술회고록을 토대로 행적을 서술하면서 그를 전형적인 식민지기업가 또는 예속자본가로 평가한 조기준 교수와 김경일 교수의 연구.<sup>7)</sup> 그가 관여했던 漢城銀行과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를 검토하면서 그의 활동을 부차적으로 언급한 연구.<sup>8)</sup> 그리고 친일파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상룡을 분석한 것 등이 그러한 예였다.<sup>9)</sup>

그런데 한상룡은 일제하의 대표적인 한국인 자본가였던 閔永徽, 朴承稷, 金季洙, 朴興植, 張稷相 등 자기자본을 가지고 거대 기업군을 일군 大資本家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당시의 한국 경제, 일본 경제, 동아시아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한국 재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專門經營人이었다. 그는 韓末·日帝下의 한국인 기업가 가운데 아주 독특한 존재였고,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는 개별 기업가의 부침을 검토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일제하 한국인 자본가·기업가의 다양한 존재형태를 밝힐 중요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sup>10)</sup>

## II. 韓末의 사상동향과 실업계 입문

### 1. 家系와 文明開化思想의 수용

韓相龍은 1880년 서울에서 義禁府都事를 지낸 韓觀洙(1848~1902)와 牛峰 李氏 사이에서 태어났다.<sup>11)</sup> 고려공신 威襄公 蘭을 시조로 한 청주한씨(恭安公派)는 蘭 이후에도 府院君을 수 명이나 배출한 자타가 공인하는 양반가문이었다. 한상룡의 祖父 韓圭錫은 尙州牧使를 지냈고, 당대 제일의 문장가로 꼽히던 규장각 대제학 韓章錫의 아들이자 한말에 학무국장, 외국어학교장, 한성사범학교장과 이완용 내각에서 내각서기관장을 지낸 韓昌洙와도 一家였다.<sup>12)</sup>

7) 趙璣濬 [96], [97], 김경일 [51].

8) 金炳哲 [54], 高承濟 [46], [48], 윤석범 외 [79]. 이와는 달리 1930년대 조선인 자본가집단 전체를 분석하면서 한상룡을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기업가 및 자본가로서, 그리고 그가 주도한 朝鮮實業俱樂部를 전체 조선의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였다고 평가한 연구가 있다. 金善一 [55].

9) 林鍾國 [87], 김경일 [50].

10) 본고에서 크게 참조한 자료와 글은 다음과 같다. 韓翼敎 編 [3], 韓相龍氏選曆紀念會 [4], 韓相龍 [1], [2], 「朝鮮實業俱樂部會報」(「朝鮮實業」), 각 권호.

11) 字는 景田, 호는 暢楠이다. 1936년 雅號 滄南을 暢楠으로 바꿨다. 韓翼敎 編 [3], 387쪽(이하 별도의 주가 없는 것은 이 책을 따름).

12) 濟州韓氏大同族譜編纂委員會 [39] 참조.

〈표 1〉 韓相龍 親家の 韓末 관계 재직 현황

이름	본관	관직/경력	비고
韓章錫	淸州	함경도관찰사(1890), 경기도관찰사(1891) 의정부우참찬(1893), 侍講院右副賓客(1894)	韓昌洙의 생부
韓昌洙	淸州	무안감리(1905), 내각서기관장(1907~1098)	韓胤錫의 장남(系)
韓炯履	淸州	탁지부세무관(1906) 해주군수겸 공립해주보통학교장(1909)	부표 참조
韓翼敎	淸州	혜민원주사(1902), 탁지부주사(1906~1098)	韓炯履의 장남
韓東履	淸州	한성재판소판사(1901), 법무법률기초위원(1905) 한성재판소검사(1908)	부표 참조
韓相鶴	淸州	비서원승(1902), 탁지부세무관(1906) 시종원시종(1907)	韓相龍의 長兄
韓相鳳	淸州	육군보병참위(1904), 육군무관학교교관(1905)	韓相龍의 仲兄
韓光洙	淸州	규장각제학(1908)	韓章錫의 장남
韓明洙	淸州	內部주사(1902), 公立慶興普通學校교원(1906) 公立金浦보통학교본과훈도(1908)	韓章錫의 삼남
尹喜求	海平	영친왕부찬위, 증보문헌비고監印委員 시강원侍讀, 규장각典製官(이상 1907)	韓相龍의 매형
徐丙台	大邱	시종원시종보(1908)	韓相龍의 매형
李豐用	牛峰	承寧府주사(1908)	韓相龍의 매형

자료 : 淸州韓氏大同族譜編纂委員會 [39]; [45]; 安龍植 [75] 각 권.

한상룡의 外家도 당대의 名門 巨族이었다. 외조부 李鎬俊(1820~1901)<sup>13)</sup>을 위시하여, 한말에 總理大臣과 軍部大臣을 지낸 외숙 李完用과 李允用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특히 그의 외가는 〈표 2〉에서 보듯이 1908년에 약 60여 명의 정부 관료들을 친인척 등으로 두었을 만큼 한말 정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sup>14)</sup> 이러한 집안의 배경 덕분에 韓相鶴·韓相鳳·韓相龍 3형제는 부친 한관수가 병약하여 家勢가 기울었음에도 외조부 이호준과 족대부 한장석 및 韓炯履<sup>15)</sup>의 도움으로 어려

13) 李鎬俊은 이조판서를 지낸 閔龍顯의 사위로 1901년 사망할 때까지 전라도 관찰사, 한성부판윤, 증추원의장, 궁내부특진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섭렵하였다. 그는 대원군을 비롯하여 당대의 세도가인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양주 조씨, 연안 김씨, 청주 한씨 등과도 사돈관계를 맺었다. 임대식 [85], 143~144쪽, 安龍植 [75], 159쪽, 648쪽.

14) 이 밖에도 1908년 당시 現政府官人으로 법무대신 高永喜, 군부대신 李秉武, 학부대신 李載崑, 중추원찬의 李在正, 내각의사국장 李建春, 내각서기관 洪運杓, 탁지부사제국장 元應常, 한성부윤 張憲植, 표훈원서기관 鄭東植, 학부편집국장 魚允迪, 漢城裁判所首班判事 金喆鉉 등이 이완용의 인맥으로 포진해 있었다. "總理와 宮相의 家族", 「大韓每日申報」, 1908. 6. 18.

15) 韓炯履는 1947년생으로 1873년 무과에 합격하여 관계에 진출하였다. 丙戌重試內歷經僉從事官과 禁府都事를 지냈으며, 1906년 이후에는 度支部稅務官, 해주군수겸 공립해주보통학교장 등을 역임하였

<표 2> 이완용 일가의 관계 재직 현황(1908. 6. 18)

이름	본관	직책	이완용과의 관계	비고
李恒九	牛峰	侍從	子	次男, 男爵(1924)
李明九	牛峰	侍從	姪	李允用の 子
李會九	牛峰	侍從副卿	堂姪	祖父 李鎬昌(李鎬俊의 親兄)
李仁用	牛峰	禮式官	三從	-
閔丙奭	驪興	侍從院卿	妻內從	韓相龍의 女 閔庚運의 祖父, 子爵
趙民熙	楊州	承寧府摠官	妻男	趙重應과 一族, 子爵
趙同熙	楊州	奎章閣卿	妹夫弟	妹夫 趙英熙의 弟, 男爵
洪運杓	南陽	侍從	女	韓相龍의 유년시절 친구, 韓昌洙의 妻姪
趙重國	豐壤	侍從	甥姪	妹夫 趙成夏의 子
金天洙	-	奎章閣書記官	戚姪	-
金瑋鎭	安東	侍從	親查	內閣주사
金晋圭	安東	懿孝殿令	妹夫	李鎬俊의 6번째 女
李龍九	牛峰	奎章閣記注官	堂姪	李會九의 長兄
尹遐求	海平	東官侍從	查	-
李丙瓚	-	耆老所典務官	三從孫	-
金永甲	光山	侍從	切戚	-
金甲承	-	侍從	戚孫	-
金瓚鎭	安東	侍從	查	-
任善準	豐川	度大	親查	長男 李升九의 장인인 任大準의 弟, 子爵
趙英熙	楊州	中樞院贊議	妹夫	李鎬俊의 4번째 女
金明秀	延安	內閣秘書課長	甥姪	妹夫 金準淵의 子

자료 : “摠理와 宮相의 家族”, 「大韓每日申報」, 1908. 6. 18; 李元衡 [83], 597~600쪽; 韓翼敎 編 [3] 등.

서부터 漢學에 정진할 수 있었고, 1892년에는 長兄 韓相鶴이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 관계로 진출하기에 이르렀다.<sup>16)</sup>

1896년 9품 秘書院郎에 임명된 韓相鶴을 따라 上京한 한상룡은, 學部 학무국장으로서 외국어학교의 교장(1896. 7~1897. 7)<sup>17)</sup>을 겸하고 있었던 韓昌洙의 권유로 官立英語學校에 입학하였다. 한상룡은 ‘자타가 공인하는 文明開化論者’로서 1885년 증광감시 초시에 합격하여 관료생활을 시작한 이래, 1895년 한성재판소 판사, 법률기초위원, 한성사범학교장을 역임하였다. 1898년에는 駐筭英, 獨, 伊公使館의 2등참서관으로, 1899년에는 1등참서관으로 약 2년간 해외에서 근무한 탓에 외국문물에

다. 濟州韓氏大同族譜編纂委員會 [39], 1314쪽, 安龍植 [75], 박은경 [65], 311쪽.

16) 국사편찬위원회 [26], 799쪽.

17) 魯仁華 [61], 140~141쪽.

밝았고 일본의 관변에도 知人이 많았다.<sup>18)</sup> 이 학교는 신교육제도 확립 후 생긴 신교육기관들 가운데 관직 진출률이 가장 높은 학교였다. 당시 정부는 文明開化와 富國自強의 추진을 위해 대외관계에 적극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자면 통역관 양성이 절실했던 것이다.<sup>19)</sup> 따라서, 이 학교에는 각종 지원이 뒤따랐고, 외국인들과의 접촉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 학교에서 文明開化의 흐름을 체감하던 한상룡은,<sup>20)</sup> 1898년에 이 학교 副教師 尙灝<sup>21)</sup>의 제안으로 비밀리에 渡美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자금 부족으로 일본에서 중도 하차한 그는 당시 군부대신이던 외숙 이운용의 소개로 일본군 參謀本部 제1부장이었던 육군소좌 宇都宮太郎<sup>22)</sup>을 만나 1899년 7월에 陸軍豫備校라고도 불렀던 成城學校 3학년에 편입하였다. 군인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반장을 지낼 만큼 적극적이었던 한상룡은 1900년에 4학년으로 진급하면서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갑자기 발병한 각기병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1901년에 귀국하였다.

2년여의 짧은 일본 유학생살이였지만, 한상룡은 이 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엄청난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첫째, 宇都宮太郎, 蓮元康丸 등 그를 보살폈던 소장층 군인들과 成城學校의 분위기를 통해서였다. 당시 일본은 '脫아시아主義'<sup>23)</sup>·'아시아主義'<sup>24)</sup>라는 인식 틀하에 武力을 바탕으로 서양 열강과 세력균형을 이루고, 일

18) 大村友之丞 [9], 147~151쪽, 尹在杰 [80], 380쪽.

19) 魯仁華 [61], 171~179쪽.

20) 당시 외국어학교 학생들은 대한제국의 자주적인 근대화 노력에 贊意를 보냈다. 만민공동회에 참석하여 국정의 혼맥상을 규탄하기도 하였으며, 학교 당국이 독립협회, 황국총상회 등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 하여 학교를 自退하기도 하였다("격분 퇴학", 『獨立新聞』, 1898. 10. 13). 외숙 이운용이 1896년 7월에 독립협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898년 7월 제명당할 때까지 그 중심에서 활동하였고, 한창수도 1897년과 1898년 사이에 독립협회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음을 고려할 때, 한상룡도 역시 독립협회에 관심을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영석 [63], 임대식 [85], 주진오 [103], 93쪽.

21) 尙灝는 渡美계획이 좌절되자 일본에 남아 東京私立工手學校, 東京第一高等學校 大學豫備科 第二部 工科, 東京帝國大學 工科大學 造船科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농상공부의 관료를 지냈다. 국사편찬위원회 [27], 556쪽, 安龍植 [75], III, 271쪽, IV, 159쪽.

22) 宇都宮太郎은 佐賀縣 출신으로 육사 7기 졸업생이다. 1885년 입관하였으며, 1904년을 전후하여 駐英公使館附 武官으로 러일전쟁을 지원하였다. 1918년에 조선군사령관에 임명되었고, 1919년 3·1운동 이후 1년 6개월 동안 계속 전재하다가 일본에 귀환하여 군사참의관으로 영전되었다. 林鍾國 [89], 107쪽, 古野直也 [112], 156쪽, 263(자료)쪽.

23) 福澤諭吉의 '脫亞論'은 그 논리의 근거를 文明開化論에 두었다. 그는 일본을 文明世界의 일원으로 위치시켜 중국과 조선에 대한 간섭을 '文明'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자 하였다. 박영재 [64], 117~118쪽.

24) 아시아주의란 넓게는 아시아를 서양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자거나 또는 일본을 아시아의 盟主로 삼자는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大東合邦論·連帶論·提携論 등의 형태로 나타났던 西勢의 아시아 잠식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아시아 공동체적인 인식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모든 형태의 아시아주의론은 예외 없이 아시아 제민족과 일본과의 관계를 수평

본을 정점으로 하는 '東洋平和'를 이룬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군인들 사이에서는 '동양의 유일한 신뢰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協戮一致 하여 外敵(歐美 各國-필자)'에 맞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sup>25)</sup> 한상룡이 시베리아철도가 全通될 경우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세력의 남하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이러한 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동양의 장래는 반드시 日本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어린 나이였지만 항상 느끼고 있었다. 성성학교 재학 중에는 항상 기숙사에서 9시 소동시간이 지나면 나는 램프를 키고 鮮人유학생, 나아가서는 支那人 유학생 수명을 불러 모아 지도를 둘러싸고, '今後 시베리아철도가 全通하면 동양의 정세도 一變할 것이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였다.”<sup>26)</sup>

둘째, 일본에 피신해 있던 한국의 주요 망명 정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sup>27)</sup> 朴孝孝, 安駟壽, 趙義淵, 趙義聞, 兪吉濬, 鄭蘭教, 權澄鎮, 權東鎮, 尹致旻 등이 그들인데, 이들 망명자들은 대부분 福澤諭吉의 영향을 받아 일본을 모델로 한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거나, 일본의 힘을 빌려 정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sup>28)</sup> 福澤諭吉(1835~1901)과 兪吉濬(1856~1914)의 교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sup>29)</sup> 한상룡이 兪吉濬과 친밀했던 것으로 보아 '脫亞論'이나 '아시아주의'의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귀국 후 한상룡은 일본공사관에 드나들면서 林權助 공사, 萩原守一 서기관, 鹽川一太郎 통역관과 친교를 맺었고, 일본수비대장 野津鐵武 소좌로부터는 '동양에 대한 지론을 흥미 깊게 拜聽'하기도 하였다. 野津은 일본의 명문 가문 출신으로 일찍이 西歐에 유학한<sup>30)</sup> 인물인데 비록 직책은 公使館附 武官에 불과했지만, 정계의 막후 실력자 중 한 사람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1903년에 한국 軍部の 顧問이 될 정도로 고종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그는 韓相龍의 후원자였던 완순군 李載完과도 친분이 두터웠다.<sup>31)</sup> 1901년 조선을 여행한 일본 정계의 거물 近衛篤

적인 관계에서 논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일본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관계에서 논하고 있는 점이 그 공통점이다. 박영재 [64], 123~124쪽.

25) 西四辻公堯 編 [14], 7~8쪽.

26) 韓翼教 編 [3], 51쪽.

27) 이러한 경험은 전술한 魚潭 이외에도 秋汀 李甲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 있어 당시 유학생들에게는 공통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주요한 [100].

28) 이들 망명객들과 福澤諭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具仙姬 [49], 宋京垣 [74].

29) 福澤諭吉과 유길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趙恒來 편저 [99], 116~151쪽, 具仙姬 [49], 40~49쪽.

30) 西四辻公堯 編 [14], 38쪽.

磨의 소개로 이재완을 알게 된 후, 평식원 설립 문제, 한성은행 개편 문제 등 한국 정부의 굵직한 사업에 대해 이재완과 비밀협상을 많이 하였던 까닭이었다. 그는 이런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상룡을 비롯한 일본유학생 출신들을 적극 후원하였다. 이들이 한국 정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도록 하여 향후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도울 韓國內 파트너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한상룡에 대한 일본공사관의 적극적인 원조와 보호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sup>32)</sup>

1902년 8월에 한상룡은, 귀국 후 한 때 맡았던 中橋義塾<sup>33)</sup>의 영어교사를 그만두고, 궁내부 平武院의 총무과장(1902. 8. 24~1903. 7. 18)이 되었다. 平武院은 개항 이후 외국과의 통상 증진에 따른 도량형의 정비와 관리를 위해서 설립된 신식기구인데,<sup>34)</sup> 그의 총무과장 발탁에는 평식원 총재였던 宮內府大臣 李載完의 후광이 있었다.<sup>35)</sup> 그가 李載完<sup>36)</sup>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01년 여름 경부철도 기공식에서 李載完의 통역을 맡게 되면서였다. 이재완은 이용익과 함께 고종의 최측근으로서 일본 공사관에서도 접근을 피하였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황실의 종친이었다. 한상룡이 일본 유학 당시 후견인이었던 宇都宮太郎의 소개로 귀국 직후부터 앞서의 野津鎮武와 잘 알고 지내던 터였기 때문에,<sup>37)</sup> 일본과의 비밀협상이 많았던 이재완에게도 그는 매우 필요한 존재였다.

한상룡의 관계 진출은 韓相龍, 李載完, 일본공사관 3者の 이해가 일치하여 가능하였고, 그와 이재완의 밀착도 이로써 더욱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었다. 1903년 한상룡이 한성은행의 우총무로서 실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도 그 때 이재완이 은행장으로 취임한 때문이었다.

31) 1903년 3월 24일, "일본인 野津鎮武를 군부고문으로 임명하다", [45]. 그는 1906년에 軍部顧問官으로서 그 공을 인정받아 敍勳2等하였으며, 八卦章을 받기도 하였다. "顧問敍勳", 「皇城新聞」, 1906. 5. 21.

32) 野津鎮武는 한상룡에게 의주·평양 등 북쪽 주요 군사요충지의 府尹이 되어 일본군의 복진을 도와주도록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野津의 위치와 한국내 유학생들을 활용하고자 했던 일본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韓翼敎 編 [3], 64쪽.

33) 1896년 閔泳綺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이다. 金泳謨 [56], 148쪽.

34) 일본은 '日韓貿易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實質上 그들의(도량형-필자) 제도와 합치하는 제도를 한국에 강요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27], 189~193쪽.

35) 「舊韓國官報」, 11, 1903. 8. 26. 이 때 평식원은 1902년 9월 度量衡의 改正에 필요한 자금 25만 원을 제일은행(경성지점)으로부터 들여왔다. 이 때 한상룡은 이 지점의 지배인 高木正義와 借款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제일은행과의 인연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長谷井千代松 編 [19], 87쪽, 韓翼敎 編 [3], 49쪽.

36) 이재완은 고종의 從第에 해당하는다. 1855년생으로 1875년 文科에 급제하여 1877년 부승지가 되었다. 이조참판(1880), 홍문관 계학(1886), 이조판서(1891), 宮內府大臣(1899) 등을 지냈으며, 1899년 9월 完順君의 작위를 받고 정 1품에 올랐다. 大村友之丞 [9], 35쪽.

37) 西四辻公堯 編 [14], 11~12쪽.



## 2. 漢城銀行 참여와 한말 기업활동의 특징

韓相龍은 1903년에 公立漢城銀行 우총무로 발탁되면서 실업계에 투신하였다. 주지하듯, 한성은행은 1897년에 金宗漢(1844~1932) 등에 의해 자본금 20만 원으로 설립된 은행이었다.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조세 수납을 대행하면서 확보한 자금으로 5~7일 기한의 어음할인, 換錢업무, 일반 대부업무 등을 하였다. 이 은행은 증도에 해산한 조선은행과 달리 꾸준히 영업을 지속해 왔으나, 1903년 公立漢城銀行으로 체제 개편을 단행하기 직전에는 '渙散할 境에 至' 할 만큼 영업 성적이 좋지 않아 거의 停業상태와 다름 없었다.<sup>38)</sup> 이 은행의 영업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첫째, 1899년 大韓天一銀行(이하 천일은행)이 설립되어 朝鮮銀行과 함께 경쟁체제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천일은행은 다른 은행과는 달리 당시의 通例를 깨고 한성부의 특별인허를 받아 典當給債(부동산 담보 대부)를 취급하는 등 그 영업범위를 확대하였고,<sup>39)</sup> 이에 한성은행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둘째, 大韓帝國기 개혁과 근대화의 핵심기관이었던 宮內府와 軍部の 전현직 고위관리들이 발기인 및 중역을 맡았던 천일은행과 달리,<sup>40)</sup> 한성은행은 金宗漢을 제외하고는 그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민을 만만' 천일은행에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41)</sup> 이러한 지원과 특권에 기초하여 천일은행의 영업실적이 향상된 반면 한성은행의 영업기반은 축소되었다. 더욱이 은행장 金宗漢이 1900년 함경도관찰사(1900. 3~1902. 3)에 임명되어 서울을 한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경영상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sup>42)</sup>

이러한 한성은행이 1903년에 公立한성은행으로 改組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째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려는 일본의 의도였다. 1903년에 러시아는 경의철도 부설권을 조차하기 위해 경제차관 500만 원 제공을 의무대신 조병식을 통해 제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38) 윤석범 외 [79], 64~71쪽, 都冕會 [62].

39) 高台鏞 編 [7], 27쪽, 31쪽.

40) 천일은행의 발기인에는 沈相薰(탁지부대신, 군부대신), 閔丙奭(궁내부특진관, 궁내부대신), 閔泳綺(軍部차관, 육군부장), 李根濬(중추원의관, 법무차관), 李容翊(永興부사, 典圖書長), 趙東潤(궁내부특진관, 元帥府군무국장) 등 최고급관리들이 참여하였다. 高承濟 [47], 11쪽.

41) 都冕會 [62], 111쪽.

42) 高承濟 [46], 14쪽, [47], 20쪽, 국사편찬위원회 [28], 光武 4년 3. 28, 光武 6년 3. 13.

피했던 것이다. 이에 일본은 제일은행장 澁澤榮一과 일본공사관을 통하여 이의 저지에 나섰고, 러시아의 경의철도 부설권을 물리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같은 액수인 500만 원 차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sup>43)</sup> 澁澤榮一은 경성출장소장 高木正義, 野津鐵武 등과 협의하여 러시아의 차관을 거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복안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인이 경영하는 은행을 하나 세우고, 그 소요 資金은 제일은행이 후원한다. 그러나 이름만은 번듯한 한국인 은행으로 하고, (정부가-필자) 그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경제개발에 나선다는 口實'이었다.<sup>44)</sup>

둘째는 日本第一銀行券을 유통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였다. 제일은행권의 한국내 유통이 한국상인들의 반발로 많은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은행을 통해 은행권을 발행하거나 제일은행권을 유통시킨다면 한국민들의 거부감을 덜 수 있으리라는 일본측의 계산이 있었다.<sup>45)</sup>

이 때의 '한국인 은행'으로 한성은행이 지목되었다.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공사관과 이재완 사이에는 많은 협상이 이루어졌다. 한상룡은 양자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 때 능력을 인정받아 이재완의 은행장 취임과 더불어 우총무로 등용되었다.

한상룡은 우총무로서 처음부터 出納, 預金, 爲替, 計算, 庶務 등 모든 분야의 실무를 도맡았고, 고객이 來店하면 총무석으로 돌아가 응접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는 제일은행 경성지점에 가서 은행 운영법과 西洋簿記를 배워 실무에 적용하였다.<sup>46)</sup> 이는 資金源인 제일은행에서 요구한 것이기도 하였다. 한성은행의 자본금이 李載完과 金宗漢의 合資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sup>47)</sup> 가옥 구입 등의 제반 시설비용, 운영자금, 대출자금을 합친 총 3만 5,000 원은 제일은행으로부터 무담보로 借入하였던 것이다. 이 때 日步 2錢 7厘의 低利로 자금을 빌려 비교적 低利인 日步 6錢 (연 21.9%)으로 대출하였기 때문에 결산기에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國際金

43) 협상은 이재완과 野津鐵武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협상에 대한 내용에 확신을 주기 위해 각서를 써서 교환하였다. 西四辻公堯 編 [14], 56~60쪽.

44) 韓翼教 編 [3], 52~53쪽.

45) 西四辻公堯 編 [14], 61~64쪽.

46) 그러나 당시 은행장 李載完과 副長 金宗漢은 橫書의 서양부기를 몰랐기 때문에 별도로 漢文으로 재래식 장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아라비아 숫자에 의한 서양부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당시의 초창기 민족은행들은 모두가 재래식 부기법인 松都四介置簿法을 사용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현대식 부기가 보편화된 것은 1907~1908년에 이르러서였다. 尹根鎬 [78], 300~301쪽.

47) "...漢城銀行이 八九年前에 設立되었더니 其間에 事情을 因하여 三四年 停業되었다가 再昨年에 完順君李載完氏와 金判書宗漢氏가 商界上 裨益을 圖기 爲하야 更히 合資會社로 組織 營業하더니...", 「皇城新聞」, 1905. 11. 16.

리로 저리자금을 조달하여 高利貸가 만연하였던 당시에 파격적인 이자율로 대출하였던 것인데, 이는 일반에게 많은 환영을 받았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한상룡은 제일은행과 교섭하여 고객의 부동산을 담보로 再割을 받고,<sup>48)</sup> 형제는 물론 李載完, 李允用, 李完用, 韓昌洙에게 부탁하여 3,000 원에 달하는 예금을 확보하였다. 融通資金에 여유가 생겼고, 은행의 경영성적도 차츰 좋아지게 되었다.<sup>49)</sup>

그러나 1904년 봄, 한상룡은 高木正義의 후임으로 부임한 제일은행 경성지점장 清水泰吉로부터 한성은행의 해산을 권유받았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러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러시아의 차관 강요가 사라지고, 1903년 2월 12일에 제일은행권의 유통금지령이 철회되자 漢城銀行이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sup>50)</sup> 일본이 계획하였던 '豫期の 목적'이 달성되었던 것이다. 둘째, '은행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時機尙우이며' 또한 '資金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은행을 경영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清水泰吉의 판단 때문이었다.<sup>51)</sup>

그러나 화폐정리로 인한 공황사태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켰다. 화폐정리 및 외획의 금지로 발생한 1905년의 '貨幣金融恐慌'으로 은행의 역할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한국의 금융사정은 이에 부응할 수 없었다. 大韓天一銀行이 1905년 6월 말부터 1906년 7월 1일 재개업할 때까지 일시 휴업하였고,<sup>52)</sup> 한성은행도 약소한 자본금과 조직의 열악함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sup>53)</sup> 이에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郎은 清水泰吉의 공황에 대한 대책 보고서<sup>54)</sup>를 토대로 한성은행을 주식회사로 개편할 것을 지시하였고,<sup>55)</sup> 清水泰吉은 다시 韓相龍에게 은행조직을 자본금 15만 원의 株式會社로 개편하여 자본금을 늘리도록 요구하였다.

48) 韓翼教 編 [3], 65쪽. 1904년 봄, 한상룡은 제일은행 경성지점장 清水泰吉의 은행 해산 요구에 "그러면 3만 5,000원 이상은 대출하지 않겠다."며 반발하였다. 이는 당초 차입금이 3만 5,000원이었으며,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때는 제일은행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49) 韓翼教 編 [3], 53~56쪽. 公立으로 개편될 당시의 자본금 규모, 자본금과 자금원천에서 차지하는 제일은행의 비중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를 회고한 글과 몇 년 후의 자료들로부터 한성은행에 대한 제일은행의 영향력이 컸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韓百興 [104], 327~334쪽.

50) 일본 제일은행권의 유통과 이에 저항한 상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趙宰坤 [98].

51) 각주 48)과 같음.

52) 高台鎮 編 [7], 35~41쪽.

53) 貴田忠衛 [8], 33쪽.

54) (제4항) "漢城銀行은 從來 當店에서 監督하여 多少 融通을 하였으나 同行의 組織 完全치 못함으로 이번에 株式組織으로 바꿔 主로 韓商人에게 대출을 하도록 할 事", [41], 310쪽.

55) 貴田忠衛 [8], 32쪽. 馬場鎮一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모든 決議는 目賀田種太郎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은행장 이재완이 주식회사로의 개편에 반대하였다. 한성은행은 제일은행과 달리 '商賣'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한상룡은 漢城銀行의 존립 여부를 내세우며 이재완을 거둬 설득하였고,<sup>56)</sup> 이재완의 허락과 함께 본격적인 주식회사로의 조직개편이 시작되었다. 한상룡은 곧바로 제일은행의 것을 모방하여 定款을 만들고 총 3,000주의 주식을 공모하였다. 그는 李載完(400주), 韓昌洙(640주), 李允用(200주), 韓相鳳(20주) 등 知인과 친척들에게 주식의 인수를 권유하였다.<sup>57)</sup> 그 결과 3,000주 중 예상보다 많은 2,200주를 소화시킬 수 있었고, 나머지 800주는 제일은행 有終會가 인수해 주었다.<sup>58)</sup> 이로써 한성은행은 1905년 9월 자본금 15만 원(불입자본금 3만 7,500원)의 株式會社로 변경되었다. 은행장 이재완, 부장 김종한, 좌총무와 우총무를 합한 총무장에 한상룡이 선임되었다.

한성은행은 1906년 5월 28일에 탁지부로부터 융통자금 10만 원을 무이자로 貸下 받았다. 이 자금은 目賀田種太郎이 화폐정리사업에서 이후의 화폐공황을 수습할 목적으로 1905년 일본 정부로부터 차입한 150만 원의 일부였다.<sup>59)</sup> 이를 계기로 한성은행은 재정고문부로부터 파견된 일본인 사무관 馬場鐵一과 모든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했다.<sup>60)</sup>

한성은행은 그 후 영업실적이 점차 나아지면서 화폐공황의 후유증도 수습해 나갔다. 1906년 10월과 1908년 2월에 각각 수원지점과 東幕출장소를 개점했으며, 1907년에는 자본금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자(불입자본금 7만 5,000원)하였다.<sup>61)</sup> 부녀자의 은행 이용을 장려하고 은행 거래의 장점과 거래방법을 설명한 '預金冊'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예금 유치에도 노력하였다. 1910년에는 총예금이 71만 6,000

56) 韓翼教 編 [3], 65~66쪽.

57) 1906년 12월 31일 현재 이들과 韓相龍의 주(140주)는 모두 1,400주로 전체(3,000주)의 46.7%에 달하고 있다. 윤석범 외 [79], 98쪽.

58) 이 有終會의 800주 인수는 그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07년 6월 30일부터 이전에 없던 有終會(400주)라는 이름이 주주명부에 등장하고, 그와 함께 주요 주주였던 金成會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당초 有終會가 借名으로 등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유종회의 株數도 최초 400주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주식회사로 개편될 때 주주가 17명이었기 때문에(조흥은행 [39], 87쪽) 800주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韓百興 [104], 337쪽.

59) 目賀田種太郎은 이 자금으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정부창고, 수형조합 및 지방 금융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를 계기로 통감부는 각 금융기관의 지배인 등 운영의 실권자를 일본인으로 천거하거나, 업무감독관을 임명하는 등 전 금융기관을 장악해 나갔다. [41], 311~312쪽.

60) "銀行監督", 「皇城新聞」, 1906. 6. 9; 貴田忠衛 [8], 28쪽.

61) 한편 1907년 1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하여 종래의 主務員制를 폐지하는 대신 取締役制(현행 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주무원을 그대로 선출한 결과 은행장 李載完, 부장 李允用, 총무장 韓相龍이 취체역으로 취임하였다. 조흥은행 [38], 93쪽.

원에 달하여 1905년 대비 8배 이상 신장하였으며, 그 중 저축성예금이 40%에 달하여 안정적인 예금구조를 실현하였다.<sup>62)</sup> 그 결과 한성은행의 인지도는 날로 높아갔고, '각 商民들이 競爭買株' 하여 株價도 상승하였다.<sup>63)</sup> 이른바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것이다. 韓相龍은 이 과정에서 경영 능력을 내외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약 '靑年實業界 首席'이라는 찬사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sup>64)</sup> 이미 1907년 6월 京城商業會議所 會頭에 추대될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거는 財界의 기대가 컸음을 나타낸다.<sup>65)</sup>

이러한 한상룡의 성장은 집안 배경과 이재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이른바 '한국경제의 식민지적 재편'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일본의 對韓 경제침투를 침략이 아닌 근대화의 일환이라고 인식하여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일본의 힘을 빌려 근대화를 이룩하는 것이, 낙후된 한국을 보다 '근대화된 일본에 가깝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가 目賀田種太郎(재정고문, 1904. 10~1908. 11)·伊藤博文(초대총감, 1905. 3~1909. 6)·濞澤榮一이라는 일본 정재계의 거물 3인을 '조선 근대화의 기초를 세운 이들'로 추켜세운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하였다.<sup>66)</sup> 그들은 합방 전 韓相龍에게 각종 정책적인 지원과 지도를 통해 사상적 영향을 주었고, 韓相龍 또한 그들에게 협력하면서 실업계의 중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sup>67)</sup> 그가 한말에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1905, 株主 50주), 漢城手形組合(1905, 평의원), 漢城農工銀行(1906, 설립위원), 東洋拓殖株式會社(1908, 설립위원 및 이사·조사부장),

62) 이하 별도의 각주가 없는 한 漢城銀行의 경영변동에 대해서는 윤석범 외 [79], 3장·8장, 조흥은행 [38]을 따랐다.

63) '…근자에 탁지부에서 금 10만 환을 無利貸下하여 商界金融을 開通케 하는데 該은행총무장 韓相龍이 은행사업에 확실정통하여 一切 사무가 精明保辭한 고로 탁지부고문실에서 派員調査하여 洽爲 感喜하고 內多商民이 日來任金하고 該銀行株券의 株本價가 92환 50전(12환 50전의 誤記-필자)이더니 근래 각 상민이 競爭買株하여 株價가 13환 50전에 質하다고 人皆稱道하니 한국경제상을 위하여 오인은 不勝栢悅하노라.', "銀行大興旺", 「大韓每日申報」, 1906. 6. 12.

64) "朝鮮人物觀 -靑年實業界의 首席을 占한 韓相龍氏", 「每日申報」, 1912. 12. 24.

65) 牧山耕藏 編 [10], 148쪽, 四方博 編 [12], 128쪽. 당시 재계가 한상룡을 會頭로 추천한 이유는, ① 商業會議所의 말보, ② 각 상인으로부터의 賦課金 징수라는 두 가지 과제를 실시하여 부진한 상업 회의소 운영을 정상화시키도록 기대한 때문이었다. 韓翼教 編 [3], 101쪽.

66) "나는 오늘날의 조선을 구축한 공로자로서 한 사람을 든다면 첫 번째로 伊藤公, 두 번째로 目賀田 남작, 세 번째로 濞澤자작을 내세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韓翼教 編 [3], 68쪽.

67) 한상룡은 이 중에서 특히 일본 경제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濞澤榮一을 일생 동안 慈父처럼 여기고 자신의 一生의 모델로 삼았다. 한상룡의 회고록에 실린 祝辭 중 상당수가 한상룡을 '조선의 濞澤榮一'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만큼 한상룡과 濞澤榮一의 일생은 유사한 경로를 밟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촉망받는 젊은 理財家였던 한상룡이 여러 관직을 제외받고도 오직 실업계에만 전념하게 된 것도 '一生一業'이라는 濞澤榮一의 교훈 때문이었다. 韓翼教 編 [3], 第二編 「韓相龍氏를語る」.

韓國銀行(1909, 설립위원) 등 일본이 주도한 국책은행이나 회사에 설립위원 또는 발기인으로 당시 '주식에 대한 관념이 박약한' 한국사회에 주식을 소화하는데 앞장선 것은 바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식민정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국에서 조달한다는 일본의 정책을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충실히 수행하였던 셈이다.

### Ⅲ. 1910년대 및 1920년대 한성은행 경영과 식민지기업가로의 성장

#### 1. 한성은행 경영확대와 조선실업구락부의 창립

1910년 9월 한상룡은 한성은행의 專務가 되었다. 그 때까지도 이 은행의 경영 전반과 실무를 총괄해 왔던 그였지만, 1909년 7월에 이재완의 후임으로 외숙 李允用이 은행장에 취임한 까닭에 그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東拓의 조사부장직도 사임하였다. 은행 업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었다. 이 때 형성된 李允用-韓相龍 라인의 구축은 일제 식민지 권력을 배경으로 한 한상룡의 성장 기반이 되었다는 측면 외에도 황실 세력의 퇴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1908년과 1909년 각각 副長과 은행장을 사임한 金宗漢과 李載完이 모두 궁내부대신을 지낸 고종의 최측근들이었기 때문이다.

專務 취임 이후, 그가 착수한 것은 '300萬圓 增資'였다. 그가 增資를 생각한 까닭은, 당시 자본금이 30만 원에 불과하여 경쟁은행인 天一·韓一 두 銀行의 자본금(50만 원)보다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용자금을 자본금에 크게 의존했던 당시의 금융사정상 자금조달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근대 금융기관으로의 기틀을 다지고 他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 직후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일반에 대한 주식 공모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그는 한일합방 당시 조선에 뿌려진 '恩賜金'에 주목하여 '恩賜公債'를 이용한 增資案을 총독부에 제출하였다. 그가 은사공채에 주목한 배경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恩賜金'이 소액 현금 이외에는 대부분 年利 5分의 國債(恩賜公債, 5년 거치 50개년 상환)로 발행되고, 더욱이 총독부의 인가 없이는 讓渡나 質入이 금지되었던 탓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사정이 어려운 귀족들이 이 공채를 '100원에 대해 75원 내지 80원'이라는 험 값에 放賣하였고, 이를 기회로 사기를 도모하는

이들도 생겼다.<sup>68)</sup> 이에 총독부는 이미 허가한 공채에 대해 조선은행에서 액면가대로 매입해 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조선은행의 소극적인 태도로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총독부도 은사공채 처리에 고심하고 있었다.

둘째, 은사공채의 현금화를 저지하고 그 용도를 감독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움직임<sup>69)</sup>과 강점 후 새로운 활동의 장을 기업활동에서 찾았던 대한제국의 관료와 귀족들 사이에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자본의 多少와 관계없이 이들의 企業熱은 고조되고 있었으나, 총독부는 은사공채 자금은 물론 귀족들의 개인 자금도 총독부의 의도에 따라 지출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발포된 會社命은 이러한 총독부의 요구를 뒷받침하였다.<sup>70)</sup>

셋째, 李完用, 趙重應, 李夏榮, 李允用 등의 주도하에 授爵 귀족들만으로 별도의 은행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sup>71)</sup>

그러나 총독부는 한상룡의 案을 거절하였다. 일개 시중은행을 위해 매매제한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그는 은사공채의 현금화를 승인하되 그 용도를 제한한다는 총독부의 방침을 역이용하였다. 은사공채 투자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총독부는 1911년 1월, 府令 제2호로 '株式會社漢城銀行의 資本增加及業務監督에 關한 件'을 공포하여 '當該 공채증서로 拂入에 充당하는 자에 한하여' 액면가대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sup>72)</sup>

그러나 300만 원 증자에는 대가도 뒤따랐다. 총독부가 증자를 허가하면서 철저한 은행감독을 요구한 것이다. 즉, 취체역과 감사역의 취임, 株主에 대한 이익금 배당, 적립금의 사용, 타은행이나 회사의 대리업무 등을 총독으로부터 인가받아야 했으며, 또한 每月實際報告書와 每月末諸貸出金個人別現在高表 등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를 총독에게 제출해야 했다. 한국인이 아니면 이 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대한제국기의 舊慣을 명확히 정관에 설정하였다.<sup>73)</sup> 이 때 그가 주주를 한국인으로 한정하며 내세운 논리는 '총독부의 방침하에 微微한 조선경제계를 極力 보호

68) <公債所持者注意>, 「每日申報」, 1911. 3. 14.

69) 예컨대, 各道는 頒與받은 은사금에 대해 그 사용할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경기도청에서는 ... 養蠶事業을 권장하기로 내정' 하였다. "京畿道授產金", 「每日申報」, 1910. 1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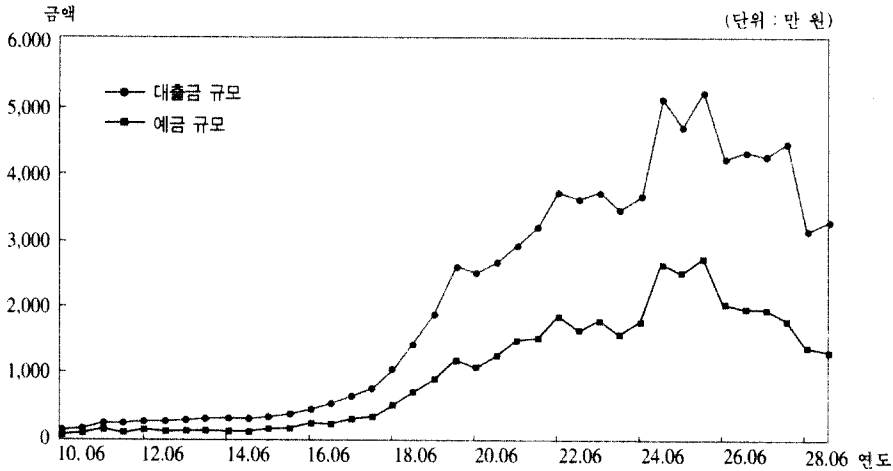
70) 전우용 [92], 284~289쪽.

71) 이는 결국 총독부의 은사공채 자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한성은행의 귀족은행화로 귀결되었다. "貴族銀行의 設立", 「每日申報」, 1910. 11. 10. "貴族銀行有望", 「每日申報」, 1910. 11. 29.

72) "株式會社漢城銀行의 資本增加及業務監督에 關한 件"(조선총독부령 제2호), 「朝鮮總督府官報」, 1911. 1. 15.

73) 1913년 11월 29일 이 조항을 다소 완화하여 '日本帝國의 臣民'이 경영하는 은행으로서 한국에 본·지점을 둔 은행에는 이를 예외로 인정하여, 일본의 각종 국립은행과 보통은행이 한성은행 주식을 소유할 길도 열었다. 윤석범 외 [79], 213쪽.

〈그림 1〉 한성은행 예금 및 대출금 규모 추이(1910~1928)



자료 : 조흥은행 [39], 제3편.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條文을 삽입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한국인 貴族들의 은사공채를 흡수하기 위해서 일인자본의 참가를 한동안 봉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 한성은행에 대한 제일은행의 횡포가 심하다는 世評이 있어 귀족들이 한성은행에 참가하기를 주저하자, 한상룡은 총독부와 협의하여 한국인 귀족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條文 삽입을 허가받았던 것이다.<sup>74)</sup> 따라서 한성은행의 주주구성은 1920년 2월 자본금을 600만 원으로 증자하면서 주식소유 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때까지 전 은행장 李載完을 최대주주로 하는 한국인만으로 이루어졌다.<sup>75)</sup>

그 후 漢銀은 〈그림 1〉에서 보듯이, 1919년 3·1운동 당시의 예금인출사태와 1920년 반동공황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하였으나 1923년까지 꾸준히 성장하였다. 1910년대에는 경기호조에 힘입어 서울과 지방의 주요도시에 점포를 신설·확장하였다. 300만 원 증자 前까지 지점 1개소(水原, 1906)와 출장소 1개소(東幕, 1908)에 불과하였던 漢銀은, 1911년 평양지점을 개설한 이후 大田지점(1912), 開城파출소(1915), 남대문파출소(1915), 종로파출소(1916), 평양大和町파출소(1917), 부산지점(1918), 서대문파출소(1919), 대구지점(1920)을 각각 설치하여 늘어난 자금수요와 호황에 따른 유휴자금의 유치에 노력하였다.

74) 韓翼教 編 [3], 133쪽. 이와 같이 다수의 귀족이 한성은행의 주주로 등장함으로써 한성은행은 귀족 은행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趙璣濬 [97], 134쪽.

75) 조흥은행 [38], 104쪽.



특히 1918년 12월에는 東京支店을 개점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은행이 외국에 지점을 낸 최초의 일이었다.<sup>76)</sup> 漢銀이 일본에 진출한 것은 한일합방 이후 한국인들 중 일본에 진출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한 漢銀의 많은 고객들이 동경지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 일본상공업계의 최대 중심지였던 東京에 지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sup>77)</sup> 여기에 1918년 당시 수상 寺內正毅의 권유가 있었다. 1918년의 '內外通法'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한국의 은행과 회사를 인정하게 되었고,<sup>78)</sup> 이의 시범 사례로 漢銀에 동경지점 설치를 권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漢銀의 성장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漢銀이 민중들의 공격대상 중 하나로 지목되어 3월 11일경부터 약 2주 동안 예금인출사태에 빠졌다. 귀족들의 은사공채로 증자한 탓에 '貴族銀行'으로 불렸고, 은행장 李允用이 한일합방 당시 총리대신 이완용의 형이었고, 專務가 그 조카인 한상룡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상룡은 곧바로 총독부, 조선은행, 제일은행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조선은행과 제일은행으로부터 각각 140만 원과 200만 원의 무담보 구제자금을 약속받았다. 당시 漢銀의 예금이 9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충당이 가능하였다. 예금인출은 20일경이 가장 많아 이날 하루에만 40만 원에 달하였으나, '은행 출납 창구에 조선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80만 원을 쌓아 두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20일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추세가 완화되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예금인출사태가 수습된 후에는 오히려 '실력 있는 은행'으로 인정받아 예금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러한 1910년대 漢銀의 꾸준한 성장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1920년 1월에 漢銀의 자본금을 다시 600만 원으로 증자하기로 결정하였다. 1910년대의 호황을 배경으로 증대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즉, 1차대전 호황으로 대거 한국으로 유입된 일본의 遊休資本을 흡수하고, 그 영업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첫째, 정관상의 주주제한규정을 철폐하여 일본인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

76) 1917년에는 탁지부장관 鈴木穆이 한상룡에게 間島지점의 설치를 종용한 적이 있었다. 이에 그는 행원 西村元雄과 洪學均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타진케 하여 금융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보고를 하였다. 첫째, 함경남북도에 지점이 없기 때문에 間島와 연락하기가 곤란하며, 둘째, 北鮮鐵道가 개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貨幣現送 등이 불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韓實教編 [3], 164~165쪽.

77) "漢城銀行 東京支店 設置에 關하여", 『每日申報』, 1918. 7. 18.

78) 1918년 4월 17일 일제가 법률 제39호와 칙령 144호로 '內外通法'을 제정·공포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일본과 식민지(한국, 대만, 관동주, 남양군도, 사할린) 간에 동일한 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은행도 일본에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그 결과 漢銀의 주주구성에 변동이 생기고, 일본인 자본의 비중도 현격하게 커져 1920년 6월 말 현재 일본인의 주식점유비율이 전체의 16.1%에 달하였다. 東拓등 국책금융기관은 물론 三井, 三菱 등 일본의 기업과 일본인이 주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었다.<sup>79)</sup>

둘째, 日人 중역의 선임이었다. 1922년 7월 22일 제3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의 일부를 개정하여 취체역과 감사역을 1명씩 증원하기로 결의하고, 취체역에 淺井佐一郎, 감사역에 今西林三郎을 선출하였다. 이는 漢銀에 일본인 중역이 참여한 최초의 일이었다. 日人 資本 유인책으로 그와 漢銀이 취한 또 하나의 방책이었다.<sup>80)</sup>

셋째, 1918년에 신설된 東京지점의 성공을 바탕으로 1922년 4월에 일본 제2의 상공업도시인 大阪에 지점을 개설하여 일본내 영업망을 확충하였다. 일본에서의 日人 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일본내에서의 영업실적은 漢銀 총예금의 20%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대출금도 예금우위를 바탕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등 양호한 업세를 보였다.<sup>81)</sup>

은행 경영자로서 한상룡은 株式引受와 預金誘致에도 수완을 발휘하였다. 1919년 말에는 李王職에 주식 인수를 권유하여 성사시켰고, 1920년 초에 다시 李王職의 예금을 유치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1920년 초 東京出張 중에도 일본 宮内省과 德川家達, 毛利元昭, 淺野長之, 黒田長成 같은 일본귀족, 澁澤榮一, 三井, 三菱 등 東京·大阪의 실업가들에게도 漢城銀行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였다.<sup>82)</sup> 이렇듯 그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위층까지 은행의 고객으로 유치할 만큼 남다른 인맥과 수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의 경영능력과 기업활동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의 성공은 漢銀의 日人 자본에 대한 예측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본과 총독부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것이다.

그는 1923년 1월, 개정된 정관에 따라 頭取에 취임하였다. 1922년 10월에 발생한 액면 5,000원의 어음부도사건<sup>83)</sup>으로 이윤용이 두취직을 사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79) 조흥은행 [38], 110쪽.

80) 이 때 일본인 중역 선출과 함께 제일은행으로부터의 파견원이 철수하였다. 한상룡은 이를 가리켜 "(이제 한성은행은) 명실공히 독립적으로 은행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漢銀에 대한 감독이 간접적인 감독에서 직접적인 지배로 옮겨졌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趙璣濬 [97], 136쪽.

81) 조흥은행 [38], 108쪽.

82) 일본의 貴族家에는 평의원회가 있어서 財政에 관련된 사무처리는 반드시 이 평의원회를 거쳐야 했다. 그가 일본귀족들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德川家達家の 평의원 중 한 사람이었던 澁澤榮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韓翼教 編 [3], 195~198쪽.

83) 이윤용이 발행한 액면 5,000원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사건을 말한다. 이 어음사건은 18은행 신용산지점에서 漢銀에 그 지분을 요구하였는데, 漢銀에서 이에 대한 지분을 거절하여 발생하였던

운용의 사임은 부도사건의 수습과정에서 여론과 은행의 동요<sup>84)</sup>를 무마하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총독부와 한상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sup>85)</sup>

이운용의 후임으로 한상룡이 결정된 것은, 1903년 이래 실질적으로 은행의 경영을 담당해 온 그가 새로운 은행장으로 적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국귀족들의 대표격인 李允用을 제거하기 위한 총독부의 의중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日人 자본에 의한 예측화 과정에서 李允用을 비롯한 귀족들이 漢銀의 경영권 장악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일본인 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은 1920년 6월 말에 16.3%, 1921년 6월 말에 17.3%, 1922년 6월 말에 19.2%이던 것이 韓相龍이 두취로 취임한 직후인 1923년 6월 말에는 28.1%로 급격히 늘었다.<sup>86)</sup>

요컨대 한상룡은 일제를 배경으로 국내 최대 민간은행의 頭取에 취임하여 그 경영권을 손에 넣었으며, 창립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하였던 고문 李載完·李允用을 비롯한 기존 대주주들은 그 주식소유비중의 하락과 함께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한편 한상룡은 漢銀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일반 실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영향력은 1911년 6월의 회사령 발표와 함께 더욱 커졌다. 합방 이전부터 '朝鮮의 經濟通'으로 알려져 있었고, 총독부와 일본의 정재계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기업 설립과 운영, 나아가 기업의 死活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한상룡은 한국내 자본가들에게는 절실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그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참가하였다. 총독부도 '믿을 만한 인물이자 보증수표'였던 그가 알선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허가를 내주었다.<sup>87)</sup> 1910~1928년 사이에 한상룡이 관여한 회사들 중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27개사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준다.

첫째, 자본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총 21개사의 평균 공칭자본금이 655만 원으로 규모면에 있어서 大銀行·會社였다. 둘째, 회사의 대표가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운용은 1922년 10월 6일 京城手形交換所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16일 해제되었다. "漢銀頭取辭職", 「毎日申報」, 1922. 10. 13. "李允用男除名復活", 「毎日申報」, 1922. 10. 16.

84) 이운용이 1922년 10월 11일에 頭取辭職願書를 한성은행에 제출하였을 때, 세간에서는 부도사건 배경으로 한상룡이 李完用과 李允用 형제간의 알력과 갈등을 꼽고, 韓相龍이 李完用에게 충실한 표를 보이기 위하여 부도사건을 각박하게 처리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頭取李允用氏不渡手形處分問題", 「東明」, 7. 1922. 10. 15.

85) 韓冀教 編 [3], 217~218쪽.

86) 윤석범 외 [79], 247쪽.

87) 그는 또한 회사령으로 회사설립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조선인 자본가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白潤洙·朴承稷 등과 같이 총독부의 입장에서 회유대상인 인물들로 제한되었다. 韓冀教 編 [3], 149쪽.

〈표 3〉 1910, 1920년대에 韓相龍이 관계한 회사

회사명	설립연도	업종	자본금(원)	참여형태	대표자	비고
(주)漢城銀行	1897	은행업	300	전무/두취(1923)	李允用	1920년 600만 원 증자
朝鮮郵船(주)	1912	해운업	300(300)	설립위원	原田金之祐	
大昌貿易(주)	1916	무역업	50	설립알선	白潤洙	
朝鮮製糖(주)	1917	제당업	500	발기인	藤山雷太	1919년 大日本製糖(주)와 합병 설립
朝鮮紡織(주)	1917	방직업	500(250)	발기인/상담역	馬越恭平	
京城製絲(주)	1917	製絲業	50	설립알선	閔丙奭	石鐵衛계회, 1920년 朝鮮製絲로 합병
東三省實業公司	1918			발기인/감사역		
朝鮮殖産銀行	1918	은행업	1000	창립위원	三島太郎	1920년 有賀光豊이 두취로 취임
西鮮殖産鐵道(주)	1919	운수업	1000(300)	찬성인	山本悌二郎	
金剛山電氣鐵道(주)	1919	운수업	500(75)	찬성인/감사역	久米民之助	
朝鮮京南鐵道(주)	1919	운수업	1000(300)	찬성인	長嶋弘(日)	
朝鮮興業鐵道(주)	1919	운수업		찬성인		
(財)朝鮮扶植農園	1919			평의원/고문		
朝鮮森林鐵道(주)	1920	운수업	2000(200)	찬성인/감사역	大川平三郎	
朝鮮産業鐵道(주)	1920	운수업	2000(200)	발기인	岡村左右松	500만 원으로 減資
北鮮鐵道(주)	1920			발기인		
朝鮮中央鐵道(주)	1916	운수업	1200(525)	감사역(1920)	小野金六	
朝鮮開拓(주)	1919	開墾		발기인	守屋此助	守屋사망으로 유실
朝鮮農林(주)	1918	조림, 임대	30(21)	상담역(1920)	西郷健雄	
中部朝鮮鐵道(주)				발기인		
朝鮮生命保險(주)	1921	보험업	50(12.5)	발기인/부사장	閔丙奭	1928년 사장 취임
朝鮮火災海上保險(주)	1921	보험업	500(125)	창립위원/취체역	河內山樂三	
朝鮮興業銀行	1922	은행업	2000	제창자		구상으로 그침
朝鮮書籍印刷(주)	1923	인쇄업	200(50)	발기인	朴泳孝	總督府教科用圖書
京城家畜(주)	1923	축산업	20(5)	발기인	荒井初太郎	가축자금 융통
京城興産(주)	1925	부동산	50(12.5)	발기인/고문	朴泳孝	漢城銀行의 子會社
朝鮮土地改良(주)	1926	토지개발	500(125)	발기인	今井五介	

자료 : 韓相龍氏還曆紀念會 [4]; 韓翼教 編 [3]; 中村資良 [23], 각 연도.

셋째, 중역진이 대부분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혼합되어 있었다. 넷째, 그가 株主나 중역이 아닌 발기인이나 설립위원 등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그는 일본인 자본가들에게 투자처를 알선하고 국내에서의 주식 매각을 돕는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상룡은 1915년 12월 한·일인 합동의 京城商業會議所를 발족시키는 데에도 중심 역할을 하였다.<sup>88)</sup> 총독부는 1915년 7월 朝鮮商業會議所令을 공포하여 상업회의소에 法人格을 부여하고, “實業界에서 內鮮融화를 이룬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말 이래 병립해 왔던 두 상업회의소의 통합을 명령하였다.

이 때 그는 한국인 상업회의소의 해산을 맡아 일본인측의 朝鮮郵船株式會社 사장 原田金之祐와 함께 통합 실무를 주도하였으며, 原田金之祐, 關繁太郎, 西村道彦, 釘本藤次郎, 金漢奎, 芮宗錫 등과 함께 창립위원으로 활약하였다.<sup>89)</sup> 그리고 1918년 6월에는 朝鮮殖産銀行의 창립위원으로 활동하였다.<sup>90)</sup>

이렇듯 그는 총독부와 한·일인 지주와 자본가들 사이에 위치하여, 三者間 역할 관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시켜 나갔다. 총독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행사에 조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sup>91)</sup> 한·일인 자본가들 사이에 利害가 대립하였을 때는 총독부에 陳情하여 한국인 자본가들을 대변하였다.<sup>92)</sup> 또한 한국내 지주·자본가들과 일본 내지의 지주·자본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였을 때는 진정위원으로 東京에 가서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sup>93)</sup>

1920년 3월에 창립된 ‘朝鮮實業俱樂部’(이하 實業俱樂部)는 이러한 그의 역할이 발전된 결과물이었다. 즉,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국내의 자본가들을 조직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계급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실업구락부는 당초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연구를 통한 경제지식의 함양’ 등을 그 창립 목적으로 삼았다.<sup>94)</sup> 그러나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의 이익 실현은 식민지 권력과 분리해서 생각될 수 없었다. 그가 ‘총독부의 시정방침에 順應 協力하고, 그것을 一般에 철저하게 보급하여 內鮮一體를 具現’ 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았다 함은

88) 四方博 編 [12], 143쪽. 이 때 原田金之祐와 한상룡이 각각 會頭와 副會頭に 거론되었으나, 부회두에는 趙鎮泰가 선임되고 한상룡은 평의원 및 상의원에 임명되었다. 四方博 編 [12], 81쪽.

89) 洪性讚 [107], 136쪽.

90) 조선식산은행의 창립과정에 대해서는 정병욱 [93].

91) 예컨대, 1915년 9월 11일~10월 31일에 개최되었던 始政5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에 대해 ‘장래 산업 개발상 甚大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조선인을 覺醒케 하는 바가 顯著하여 産業의 진흥을 刮目期待’ 하니 ‘吾人等은 이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임무가 있음을 각오하고 奮闘努力해야 한다’며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 “昨今の 經濟界에 對하여”, 『毎日申報』, 1916. 3. 7.

92) 그는 1921년 9월 총독부에서 열린 産業調査委員會에서 韓日人間 ‘利益의 分配가 공평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內鮮共同의 사업이 形式으로 호르고 있다’며 완곡하게 비판하였다. 조선총독부 [35], 159~161쪽.

93) 韓震教 編 [3], 370~375쪽.

94) 韓相龍, “實業俱樂部의沿革”, 『朝鮮實業俱樂部會報』, 6(1), 1925. 1, 15~16쪽, “朝鮮實業俱樂部의沿革”, 『朝鮮實業俱樂部會報』, 7(9), 1929. 9, 2~4쪽.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sup>95)</sup> 실업구락부가 다른 유사단체의 中絶과 달리 20년이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두 가지 목적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

實業俱樂部는 韓相龍, 趙鎮泰, 白完燦, 李達鎔, 金漢奎, 金用集, 張弘植, 金鎮玉, 金東完, 石鎮衡, 全聖旭, 申昇均, 韓翼教, 趙秉澤, 高允默, 白潤洙, 洪忠鉉, 朱性根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1920년 3월 13일에는 銀行集會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規約의 議決, 役員 選舉 등의 제반 창립사무를 논의하였다. 초대 役員으로, 회장 趙鎮泰, 부회장 白完燦, 理事長 韓相龍이 각각 취임하였고, 고문에는 美濃部俊吉(조선은행총재), 石塚英藏(東拓총재), 李允用(한성은행장), 閔永徽(한일은행장) 등 4명이 추대되었다.<sup>96)</sup>

실업구락부는 1920년 3월 19일의 제1회 例會를 시작으로<sup>97)</sup> 매월 1회의 예회를 개최하여 총독을 비롯한 官財界人士와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회보를 발간하여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 관동주 및 사할린까지 배포하여 조선의 실정을 소개하고 회원의 학식을 提高하였다.<sup>98)</sup>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술한 발기인 19명이 1,000원에서 2,000원의 유지비를 각출하여 3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충당하였으며 일반회원들에게는 1년에 12원의 회비를 징수하였다.

1923년 조진태의 뒤를 이어 회장에 취임한 한상룡은, 매년 상무이사 韓翼教와 함께 동경과 대판으로 정계, 관계, 실업계의 유력자들을 방문하여 실업구락부의 발전책을 논의하고, 그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東京과 大阪의 주요인사들과 식민지 경영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懇談會·만찬회를 '朝鮮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하였고, 그들과 한국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sup>99)</sup> 그러나 실업구락부의 회원수는 1925년 1월의 287명을 기점으로 同年 12월에 255명, 1928년 9월에 216명, 1929년 9월에 169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sup>100)</sup> 1935년에는 설립 당시 조성했던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sup>101)</sup>

이에 그는 실업구락부의 조직과 운영에 다소의 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1935년

95) 韓相龍, "本會創立第二十周年回顧", 『朝鮮實業』, 18(3), 1940. 3, 13쪽.

96) 이상의 내용은 "本會의沿革と事業", 『朝鮮實業』, 1940년 3월호. 『朝鮮實業』, 1940년 3월호는 실업구락부 창립 20주년 특집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업구락부에 대한 창립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97) "實業俱樂部組織", 『每日申報』, 1920. 3. 18.

98) 1920년 5월 18일 役員會에서 기관지의 발간을 결정하였다. 『朝鮮實業俱樂部』는 1940년 3월부터 『朝鮮實業』으로 개칭되었다.

99) 朝鮮實業俱樂部, "本會의沿革と事業", 『朝鮮實業』, 18(3), 1940. 3쪽, 5쪽.

100) 韓相龍, "實業俱樂部의沿革", 『朝鮮實業俱樂部』, 6(1), 1925. 1, "會長의挨拶", 『朝鮮實業俱樂部』, 6(10), 1925. 12. "加藤總裁を迎へて", 『朝鮮實業俱樂部』, 7(7), 1928. 9, "實業俱樂部의沿革", 『朝鮮實業俱樂部』, 7(9), 1929. 9.

101) "會務", 『朝鮮實業俱樂部』, 125호(1935. 3), 41쪽, 132호(1935. 10), 36쪽.

3월 1일 일본 동경의 中央朝鮮協會 會館에서 이른바 '朝鮮關係者들' 과 실업구락부의 發展策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기에는 정무총감 金井田清德, 조선은행 총재 加藤敬三郎, 殖銀 두취 有賀光豊, 東拓 총재 高山長幸, 총독부 재무국장 林繁藏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 참석자들은 '역사가 깊고 內鮮 실업가에게 필요한 기관' 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산하지 말고 회원을 다시 모집하여 금후의 발전을 기하라' 는 결론을 내렸다.<sup>102)</sup>

'상담자' 들의 同意를 얻은 한상룡은, 1935년 6월 7일에 실업구락부 사무소(서울 寬勳洞)에서 山本務, 森秀雄, 田中三郎, 加藤常美, 伊藤正愨, 竹內善造, 秋山滿夫, 鈴木三郎, 張弘植, 全聖旭, 赤根谷友三郎, 鎌田澤一郎, 青柳新三郎, 한익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금까지(1920~1935)는 제1기로 基礎工作을 마쳤다면, 지금부터는 제2기로 새롭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sup>103)</sup> 그는 '특별회원들의 절대적 찬동을 얻어' 회원자격을 완화하는 등 新規約를 마련하고,<sup>104)</sup> 9월 18일 총회에서는 新任員을 선출하여 진용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1935년 10월 현재에는 신입회원 120명을 합쳐 합계 320명으로 회원수에서 커다란 증가를 보였고,<sup>105)</sup> 회원자격의 職業·地域 제한이 철폐된 이후에는 일본·대만·만주·북중국·사할린 등의 유력자들이 입회하여 1938년 12월에는 회원수가 약 1,200명에 달할 정도로 발전하였다.<sup>106)</sup>

실업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그의 활동과 영향력 확대는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 더욱더 장려되었으며, 그가 실업구락부의 회장직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식민지 조선에 대한 그의 철저한 경제인식<sup>107)</sup>과 함께 총독부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02) 韓實教 編 [3], 196쪽.

103) 同年 7월 1일과 7월 10일에는 각각 특별위원회 및 打合會를 개최하여 전술한 내용의 안에 대해 同意를 얻어내고, 장래 新機構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會務", 「朝鮮實業俱樂部」, 129, 1935. 7. 44 ~45쪽.

104) 新規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회원만으로 한정하던 役員 선임 자격을 일반회원으로 확대한다. ② 회원의 자격을 실업계 종사자로 한정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③ 회원 가입의 지역제한(서울)을 폐지한다. ④ 통상회원의 회비를 年額 6원에서 3원 60전으로 인한다. ⑤ 維持會員은 유력자들로 1급, 2급, 3급으로 나눈다. "朝鮮實業俱樂部總會-躍進의新陳容整ふ", 「朝鮮實業俱樂部」, 132, 1935. 10. 36쪽.

105) 韓相龍, "齋藤閣下 に諸實を迎へて", 「朝鮮實業俱樂部」, 132, 1935. 10. 33쪽.

106) 韓相龍, "銃後の朝鮮", 「朝鮮實業俱樂部」, 17(1), 1939. 1. 부록 15쪽.

107) 그는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日帝下에 韓相龍은 조선인들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위치에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世間の 風說에 의하면 '總督府財務局長을 만일 조선인에게 내어준다면 韓相龍밖에 그의 자에 앉을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關志滿腹의 歷代巨頭", 「三千里」, 1933. 9 월호.

## 2. 한성은행에서의 퇴진과 이 시기 기업활동의 특징

1910년대 말 大戰의 여파로 호황을 구가하던 일본 경제는 1920년 3월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이 붕괴되는 이른바 '反動恐慌'이 발생하였다. 예금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은행이 169개에 달하고, 21개 은행은 휴업을 선언하였다. 또한 1923년의 지진공황, 1927년의 금융공황, 1929년 세계대공황 등의 영향으로 경기는 장기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만성적인 불황은 한국에도 즉각 파급되었다. 만성적인 불경기로 자금 수요가 위축되었으며, 부실대출이 급증하고 예금실적이 둔화되는 등 금융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경색된 금융시장에서는 경기호황을 배경으로 신설·확장된 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하였다. 은행간 협정이자율을 무시하면서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일부 특수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이에 일반은행들은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경영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환경이었다. 일반은행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수익률과 배당률은 크게 하락하였다. 개별 은행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독부는 일반은행의 정비에 나서 은행의 신설과 지점 신설을 규제하고 부동산 대부를 제한하는 한편 경영상태가 취약한 지방 중소은행들에 대해서는 합병을 유도하여 경영정상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1923년 11월 총독부는 '銀行令'을 일부 개정하고 은행합병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일부은행들을 대상으로 은행합병에 적극 나섰다.<sup>108)</sup>

한편 1927년 격심한 금융공황으로 파탄상태에 직면한 일본은 3월 30일 '新銀行法'을 공포하고, 한국에서도 1927년 6월 금융제도조사준비위원회와 1928년 8월 이를 개편한 조선금융제도조사회를 설치하여 금융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연구를 토대로 '改正 銀行令', '貯蓄組合令', '改正 金融組合令'을 발표하였다. 이들 법령은 어떤 식으로든 일반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1929년 1월부터 시행된 '改正 銀行令'은 1912년 10월에 공포된 '銀行令'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일본의 '新銀行法'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안을 담고 있었다. 만성적인 불

108) 총독부의 은행합동정책의 결과 일본인 은행은 대구상공은행의 합병을 마지막으로 대부분 조선상업은행으로 대통합(1941. 9. 자본금 992만 5,000원)되었고, 한국인 은행은 한성은행과 동일은행 합동에 의한 조흥은행 신설(1943. 10. 자본금 925만 원)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일제말기에 한국에는 조흥은행과 조선상업은행 두 개의 일반은행만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것은 윤석범 외 [79], 제8장.



황상태에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은행신설 및 운영요건을 강화시키고, 자본금 확충을 강제한 것이다.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영전실화를 내세웠으나, 실체는 은행합병을 강제하려는 조치였다.<sup>109)</sup>

1920년대의 일련의 공황으로 인한 금융계의 혼란과 그로 인한 '整理'의 분위기는 漢銀에도 영향을 미쳤다. 1920년 3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내에서도 주식 및 부동산의 시세가 폭락하는 징후가 보였다. 이에 따라 漢銀의 예금은 줄어들고, 대출금의 연체는 급격히 누적되어 갔다. 1920년대 초까지 전개되었던 漢銀의 영업 확장은 1923년을 전후한 경영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한상룡은 두취 취임 직후인 1923년 4월 東京과 大阪을 방문하고 장기적으로 연체상태에 있던 두 지점의 부동산고정대부를 정리하기로 하였지만, 1923년 9월 1일 일어난 관동대지진으로 이 또한 여의치 않게 되었다. 대지진 발생으로 일본경제가 다시 공황에 빠지고, 동경의 각 은행이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 漢銀의 자구책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한상룡은 동경으로 건너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였다. 동경으로 건너오기 전 그는 澁澤榮一, 佐佐木勇之助(제일은행), 美濃部俊吉(조선은행), 石塚英藏(동척) 등에게 동경지점 복구를 위한 원조를 打電하였고,<sup>110)</sup> 동경에 와서도 정무총감과 이재과장을 방문하는 등 관계방면에 지원을 부탁하였다. 9월 14일에는 총독부를 방문하여 漢銀에서 담보로 받은 부동산 중 285만 원 상당의 채권으로 자금유통 교섭을 벌여 성사시켰다. 이른바 肩替가 그것인데, 대출채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발행한 증권을 인수하는 負債로서 채무자는 인수받은 증권을 시장에 매각, 자금화하여 운용하는 방법이었다.<sup>111)</sup> 이 때 마련한 자금 중에서 영업자금 및 지불준비금에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전액을 부동산고정대부를 정리하여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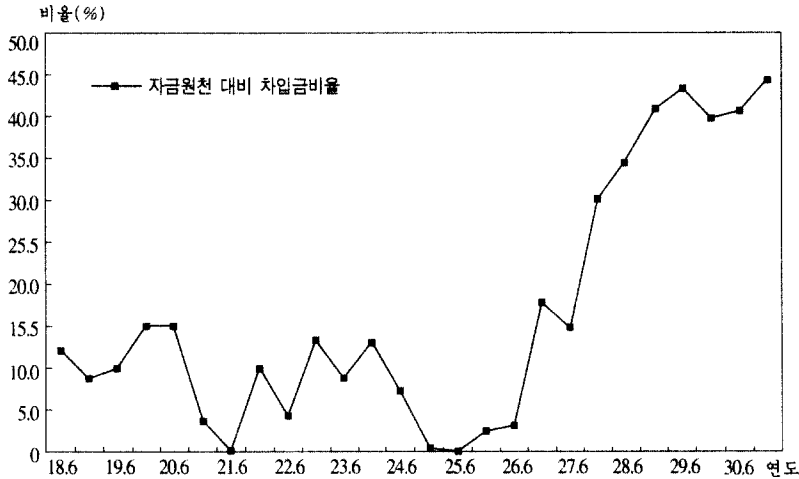
그러나 거듭된 공황과 불황으로 대출의 固定·不良化는 더욱 증가하였고, 대출자금의 회수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자 1925년을 전후해서는 예금도 현저히 줄었다. 1920년을 전후하여 漢銀의 預貸差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 차이는 자기자본과 차입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21년 6월 말 9,604원에 불과하였던 차입금은 1923년 6월 216만 원, 1926년 12월 714만 원, 1927년 12월

109)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일본의 의도는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조선저축은행-금융조합으로 연결되는 특수금융기관 위주로 1930년대의 금융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윤석범 외 [79], 250쪽.

110) 韓眞教 [3], 221~222쪽.

111) 이 동척의 전체채무 285만 원은 1925년 상반기에 185만 원을 상환하였고, 1926년 하반기에는 전액 상환하였다. 조흥은행 [38], 118쪽.

〈그림 2〉 자금원천 대비 차입금비율(1918~1930)



주 : 1921년 6월과 1925년 6월의 차입금 자료 누락.

자금원천 = 부채총액 - 미불입자본금.

차입금 = 차입금 + 당좌차월 + 정부대하금 + 풀머니 + 특별차입금.

자료 : 조흥은행 [39], 자료편.

1,099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금원천중 차입금의 비중도 1923년 6월 8.8%에서 1927년 12월 30.2%로 늘었다.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무려 2.6배나 된 것이다.<sup>112)</sup>

이렇게 내외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는 前途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성공의 토대가 되었던 漢銀의 整理와 함께 '어쩌면(그가 그 동안 이루어 놓은-필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1926년 1월 5일, 예년과 같이 총독관저에서 있던 齋藤총독의 신년연회에 갔었다. 이 때 나는 한성은행의 업무와 나의 운명에 대해서 희망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한성은행이 부진에 빠져 내가 이 지위를 잃게 된다면, 다시는 이 연회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우 비관하고 있던 나는, 쓸쓸함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술을 痛飲하여 크게 취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齋藤총독 및 다른 분들에게 매우 실례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독과 列席한 각 귀족들에 대해서 醉談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때의 쓸쓸함을 달랠 수 없어서 더욱더 痛飲하였다. 차마 볼 수 없었던 米田경기도지사가 내 손을 잡고, 자동차를 함께 타고 돌아갔다. 내가 이렇게 취할 때까지 통음한 것은, 나의 전도에 희망을 완전히 잃고, 사회인으로서 지금까지와 같이 활약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sup>113)</sup>

112) 윤석범 외 [79], 245~246쪽.

1926년 1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조선은행 長春·奉天 지점장을 거쳐 당시 부산지점장으로 있던 堤永市의 전무 入行이 결정되고, 2월 3일에 총독부에서 재무국장 草間秀雄과 한상룡 사이에 '專務 入行에 關한 覺書'가 조인되었다. 그는 일체의 업무를 전무 堤永市에게 위임해야 했다. 이는 주채권은행인 조선은행의 요구였다. 전무 堤永市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정리가 시작되었다.<sup>114)</sup>

한상룡은 이미 漢銀에서의 중심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 더욱이 오랫동안 漢銀과 실업구락부의 이사로서 그의 최측근이었던 韓翼敎가 7월에 사표를 제출하고 경남철도주식회사의 감사역으로 轉職하면서 그의 지위는 더욱 흔들렸다. 이에 그는 두취 사임의 뜻을 밝히고, 商工會議所 會頭 渡邊定一郎에게 漢銀의 정리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그러나 그가 漢銀을 물러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漢銀 대책에서의 蹉跌'을 염려한 총독 齋藤實과 殖銀 두취 有賀光豊 등이 두취 유임을 종용하였다. 결국 그는 유임을 결정하고 漢銀의 정리에 노력하였다.<sup>115)</sup>

漢銀은 1927년 5월에 일본은행으로부터 특별융자금 120만 원을 받았지만, 때마침 발생한 금융공황으로 경영정상화는 다시 실패하였다. 결국 총독부는 漢銀의 중역들과 殖銀 두취 有賀光豊, 조선은행 이사 井內勇, 渡邊定一郎, 釘本藤次郎, 한국인 주주 대표 李王職 등으로 한성은행 특별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리안을 만들게 하였고, 1928년 3월 13일 '한성은행 관계자들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이 돌연 總督府理財課에서 정리안을 발표'<sup>116)</sup>하였다. 총독부의 본격적인 한성은행정리가 착수된 것이다.

정리안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였다. 첫째, 자본금 6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半減資하고 납입자본금(375만 원)도 반으로 줄여 손실보전에 충당한다. 둘째, 법정적립금 48만 1,000원과 후기이월금 2만 2,904원 및 중역들로부터 私財 5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모두 손실보전에 충당한다. 셋째 연리 5.8%의 일본은행 특별융통금 365만 원을 일부는 연리 3%로 일부는 무이자로 융통한다. 넷째, 東京·大阪 두 지점을 폐쇄하며 은행정리를 조선식산은행에서 감독 지휘하게 한다.<sup>117)</sup> 한상룡과 한성은행은 1928년 3월 31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정리안에 따라 자본금은 반감되었고, 東京·大阪 지점도 폐쇄되었다.

한편 1928년 3월 27일 井上 일본은행총재와 三土 藏相 등 관계자들이 모여 漢銀

113) 韓翼敎 編, [3], 258쪽.

114) [44], 90쪽.

115) 韓翼敎 編 [3], 260~264쪽.

116) "二十五年 歴史집은 漢銀 一朝에 日本人機關", 「東亞日報」, 1928. 3. 14.

117) "漢銀의 兩地支店 來月에 廢止", 「東亞日報」, 1928. 4. 10, "漢銀兩支店 廢止日字決定", 「東亞日報」, 1928. 4. 22, "漢銀整理一段落", 「東亞日報」, 1928. 6. 29.

의 정리문제를 협의하고 그 동안의 특별융통액 340만 원 이외에 새로 300만 원을 특별융통하기로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 整理案을 결정한 후 제공하기로 하였다.<sup>118)</sup> 漢銀은 일본은행 특별융통금을 얻은 한국 유일의 일반은행으로 총 730만 원의 日銀 특융자금을 받게 되었다.<sup>119)</sup> 중역의 私財제공 문제는 두취 韓相龍이 독담하기로 하였다.<sup>120)</sup>

殖銀은 정리와 더불어 漢銀 주식 2만 8,094주를 소유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다. 사임한 李允用·韓翼敎의 후임으로 조선식산은행 이사 矢鍋永三郎과 조선은행 이사 井內勇이 각각 취체역 감사역에 선임되었다. 두취 韓相龍이 제출한 사표는 수리됨과 동시에 다년간의 공적이 인정되어 顧問職에 추천되었다.<sup>121)</sup> 이에 따라 漢銀 중역진은 취체역회장 白完燻, 대표취체역겸 전무 堤永市, 취체역 兪致衡, 張弘植, 矢鍋永三郎, 감사역 堀江吉之助, 井內勇으로 구성되었다. 일본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것이다. 당시 한국 最古의 일반은행이었던 漢銀은 이렇게 해서 좌절을 맞게 되었고, 1903년 이래 漢銀과 더불어 성장한 한상룡은, 漢銀에 대한 日人 지배의 확립과 함께 은행과 訣別하였다.

漢銀의 두취직에서 물러난 한상룡은 朝鮮生命保險(株) 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때까지 사장은 사돈인 閔丙奭이 맡고 있었는데, 마침 身病을 이유로 1928년 4월 사임하였기 때문에 부사장이었던 그가 후임 사장에 추천되었다.<sup>122)</sup> 그가 조선생명의 사장에 취임한 것은, 同社의 설립자이며 운영상의 실권자였던 그의 名分과 實體를 一體化시킨 것에 불과하였다.<sup>123)</sup> 그러나 조선생명의 업세가 극히 영세한 것이었기 때문에,<sup>124)</sup> 그는 조선생명을 漢銀과 같은 자신의 주력기업으로 여기지 않았다. 漢銀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 다시 재계의 중앙무대로 복귀하고자 하였다. 그가 1932년 조선신탁 설립을 주도하고 '만주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118) “漢銀에 特融決定”, 『東亞日報』, 1928. 3. 29.

119) “朝鮮內 特融借入銀行은 漢城銀行뿐”, 『東亞日報』, 1928. 3. 25.

120) “韓相龍氏 私財提供을 獨擔-齋洞住宅으로 代價”, 『東亞日報』, 1928. 6. 12.

121) “漢銀重役會는 韓氏 顧問으로 取締役會長은 白氏”, 『東亞日報』, 1928. 4. 5.

122) “韓相龍氏는 朝鮮生命社長으로”, 『東亞日報』, 1928. 4. 27.

123) 고승제 [48], 237쪽.

124) 1931년 현재 조선생명을 포함하여 32개의 생명보험회사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32개사의 수입보험료총액이 830만 6,321圓이었으므로, 보험회사 당 평균 수입보험료액은 25만 9,572圓이 된다. 그러나 조선생명의 수입보험료액은 10만 3,846圓으로 평균의 반액에도 이르지 못하는 영세함을 보여 주고 있다. 京城日報社 編 [25], 137쪽.

#### IV. 1930년대 및 1940년대 기업활동의 특징과 전시체제로의 편입

한상룡이 신탁회사 설립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29년 여름 齋藤實이 다시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면서였다.<sup>125)</sup> 이 때는 그가 漢銀 경영악화의 책임을 지고 두취직에서 물러나 조선생명의 사장에 취임해 있던 상태로서, 25년 동안 쌓아 놓은 조선사회에서의 지위가 크게 위협받던 시기였다. 그는 朝鮮信託株式會社(이하 조선신탁)라는 자본금 1,000만 원의 大會社를 설립하고 그 사장에 취임함으로써 예전의 영향력을 되찾고자 하였다.

그가 신탁회사 설립을 추진할 당시 조선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신탁회사의 설립 및 운영이 활발하였으나, 신탁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sup>126)</sup> 따라서, 認可 없이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본 신탁관련 법규의 자의적인 해석하에 어음할인, 예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를 금전신탁이라는 명목으로 취급하였다. 이에 은행들의 반발이 컸으며, 은행령 위반으로 정리 명령을 받는 신탁회사도 나타났다.

이에 총독부에서는 1930년 3월부터 수차례의 金融制度調査準備委員會를 개최하고 1931년 1월 13~15일 3일간 金融制度調査會를 개최하여 관계법령을 정비하였다.<sup>127)</sup> 이와 때를 같이 하여 朝鮮內의 24개 신탁회사가 1930년 3월 4일 同業者大會를 개최하고 10개 항목의 '信託法規 制定에 關한 要望書'를 총독부에 제출하였고, 은행측에서도 이에 대해 15개 항목의 '朝鮮에서 信託法 制定에 關한 答申書'를 제출하였다.<sup>128)</sup> 그러나 이들 양측의 입장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신탁회사들은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규제완화를 요망한 반면, 은행측은 은행업무에 대한 침해를 의식하

125) 韓相龍, “朝鮮信託株式會社の設立に關して”, 「朝鮮實業俱樂部」, 10(11), 1932. 11. 1919년 齋藤 총독과 水野 정무총감이 부임할 당시 水野 정무총감과 만나 신탁회사 설립에 대한 건의를 하였고, 두 사람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 창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1920년 3월의 反動恐慌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126) 伏見寬次 [11], 214쪽.

127) “朝鮮金融調査準備委員會를 開催, 今後 每週一回”, 「東亞日報」, 1930. 3. 21. “金融制度調査準備委員會, 總督府三會議室에서”, 「東亞日報」, 1930. 3. 25. “朝鮮金融制度調査會 十三日に 開催”, 「東亞日報」, 1931. 1. 10. “朝鮮金融制度調査會 十三日 開催”, 「東亞日報」, 1931. 1. 14 등. 同조사회는 兒玉 정무총감(위원장), 林 재무국장, 田原拓務 서기관, 今村 내무국장, 深澤 법무국장, 松村 식산국장, 渡邊 경기도지사, 有賀 식은두취, 朴泳孝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1명 중 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결정하였다. 이 金融制度調査委員會는 1928년과 1929년에 각각 제1회와 제2회가 열렸으며, 1931년에는 제3회가 총독부에서 열렸다. “金融調査委員 十五日に 會議”, 「東亞日報」, 1929. 1. 16.

128) 요망서와 답신서의 자세한 내용은 中村萬太郎 [21], 34~51쪽; [44].

여 엄격한 규제조치를 요청하였던 것이다.<sup>129)</sup>

朝鮮信託令은 상기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1931년 6월 9일에 제령 제8호로 공포되었으며,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sup>130)</sup> 1931년 11월까지도 '현재 조선에는 29개의 信託會社'가 있었는데, 새롭게 信託業令이 시행되면서 조선총독부는 朝鮮土地信託, 共濟信託, 群山信託, 南朝鮮信託, 釜山穀物信託株式會社 등 5개사에만 免許를 주었다.<sup>131)</sup>

한상룡의 조선신탁 설립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금융기관 및 각종 회사의 합병이라는 총독부의 정책에 부응할 경우 설립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조선신탁의 설립위원장을 맡았던 조선은행총재 加藤敬三郎은 1931년 5월 그에게 '既設회사까지 하나로 통합하여 貴下가 사장이 될 것'<sup>132)</sup>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신탁회사의 합병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가 조선신탁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929년 여름부터 1932년 말까지는 대공황으로 재계가 엄청난 불황에 빠진 때였다. 이에 그는 정부의 지원 없이 大會社를 설립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 총독 宇垣一成과 협의하여 향후 몇 년 동안 補助金과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sup>133)</sup> 그러나 既設會社들 및 금융기관들의 반발<sup>134)</sup>과 공황으로 인한 재계 사정으로 補助金支給의 내용이 결정된 1931년 12월 이후 1932년 7월까지 다시 연기되었다.

1932년 7월 加藤敬三郎(조선은행 총재), 有賀光豊(殖銀 두취), 高山長幸(東拓 총재), 朴榮喆(상업은행 두취), 閔大植(동일은행 두취), 荒井初太郎(조선신탁협회장) 및 韓相龍의 7인은 창립위원으로 두세 번의 協議會 및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의 懇談會를 통해 최종 창립을 결정하였다.<sup>135)</sup> 同年 11월 8일과 16일에 각각 제1회와

129) "信託令과 銀行側の 意圖", 「東亞日報」, 1930. 1. 18. 한일은행 [40], 98쪽. 伏見寬次 [11]. "信託預金과 銀行側の 態度", 「每日申報」, 1931. 12. 3. "一千萬圓의 大信託會社計劃", 「東亞日報」, 1932. 1. 14.

130) "信託無盡兩法令을 發布", 「東亞日報」, 1931. 6. 9. 조선신탁업령과 同 시행규칙은 朝鮮信託協會 [32], 10~72쪽.

131) "不許可의 信託會社", 「每日申報」, 1931. 11. 10. "信託의 內面許", 「每日申報」, 1931. 11. 11. "信託會社", 「每日申報」, 1931. 11. 13. "申請中の 信託會社 5社에만 內免許", 「每日申報」, 1931. 11. 14. "5信託會社 本免許", 「每日申報」, 1931. 12. 3.

132) 韓翼教 編 [3], 351쪽.

133) "一千萬圓의 大信託會社計一十萬圓 補助의 豫算 韓相龍氏 中心으로", 「東亞日報」, 1932. 1. 14.

134) 당시 일본 신탁회사들은, 고유자본 이외의 운용자금의 8할은 금전신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탁회사들의 노력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신탁업법 시행과 함께 大신탁회사가 설립되면 일본과 같이 금전신탁에 주력하게 되어 '元來 僅少한' 한국내의 예금을 신탁회사와 은행이 爭奪하는 사태가 생길 것이고, 따라서 보통은행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44], 2쪽.

135) 이 때 창립위원장은 加藤敬三郎이었고 창립사무소는 조선은행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발기인으로는 조선에 있는 內鮮財界有力者 42명이었으며 조선과 일본에 수백 명의 찬성인을 헤아렸다. 中村萬太郎 [21], 56~57쪽.

〈표 4〉 朝鮮信託株式會社 창립 당시의 重役

이름	직명	경력 및 연혁
韓相龍	취체역 회장	한성은행 두취, 조선생명(주) 사장
谷多喜磨	취체역 사장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장
色部寅	취체역	조선은행 이사
朴榮喆	취체역	조선상업은행 두취
閔大植	취체역	동일은행 두취
金漢奎	취체역	조선식산은행 상담역,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감사역
張稷相	취체역	경일은행 취체역, 倭館금융조합장, 대구창고주식회사 사장
馬越恭平	감사역	조선방적주식회사 사장
渡邊彌幸	감사역	조선식산은행 이사
金季洙	감사역	해농은행 전무취체역

자료 : 中村實良 [22], 57쪽; 中村萬太良 [21], 151~152쪽; 阿部薰 [23] 참조.

제2회 발기인회를 개최하였으며, 同月 15일부터 19일까지 株式을 公募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拂込을 완료하여 12월 16일 창립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창립되었다.<sup>136)</sup> 조선신탁은 1933년 1월 7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sup>137)</sup>

그러나 한상룡의 기대와는 달리 사장은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사장 谷多喜磨<sup>138)</sup>가 선임되었다. 설립을 주도하고, 10만 원의 補助金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였던 그를 배제한 결정이었다. 漢銀에서 실패한 그에게 자본금 1천만 원의 거대회사 경영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이다.<sup>139)</sup> 총독부도 처음에는 그

136) 株式은 총 20만 주로 그 중 2만 주는 公募에 부쳤으며, 나머지 18만 주는 발기인 및 찬성인에게 인수케 하고, 잔여분은 東拓, 朝鮮銀行, 殖銀이 책임지고 인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조선인 중에서 가장 많은 주를 인수한 사람은 崔昌學으로 2,000株였다. 이 때 한상룡은 설립 구상 때부터 주식 공모를 적어도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각지로 出張遊說하여 되도록 全朝鮮에 걸쳐 다수의 조선인에게 주식을 권유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全朝鮮內에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선인들의 주식모집이 어렵게 되자 '매우 遺憾千萬'으로 생각하였다. 韓相龍, "朝鮮信託株式會社의設立に關して", 「朝鮮實業俱樂部」, 11(10), 1932, 11.

137) 조선신탁은 그 후 1933년 9월부터 1934년 11월까지 既設 5개사를 모두 합병하였다. 이로써 조선신탁은 조선 유일의 신탁회사가 되었다. 伏見寬次 [11], 218~220쪽, 中村萬太良 [21], 69~88쪽, 한일은행 [40], 103쪽.

138) 谷多喜磨는 1884년 생으로 1909년 동경대학 獨法科를 졸업하고, 그 해 高文에 합격하여 京城裁判所 판사에 취임하였다. 1910년 12월에 행정관으로 충청남도 재무부장이 되었고, 本府 수산과장을 거쳐 경성부윤(1923), 평북지사(1925), 경남지사(1929)로 누진하였다. 1930년 12월 퇴관하여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장에 추천되어 재계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阿部薰 [23], 65쪽.

139) "韓氏計劃의 信託에 補助 決定된 일이다", 「東亞日報」, 1932, 1, 16. "韓氏는 이전 漢城銀行에 失敗한 일이 있으므로 社長자리를 차지하고 直接事業을 擔任 經營하는 專務取締役에는 日本사람을 任用하게 될 모양이라고 한다."

를 중심으로 한 회사 운영을 약속했지만, 회사의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그의 중용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변하였다. 그 결과 한상룡은 경영 일선이 아닌 취체역회장에 취임하게 되었다.<sup>140)</sup>

이에 대해 그는 '사회의 공익을 위해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고 했지만, 조선신탁의 설립과 경영을 통해 예전의 지위와 영향력을 회복하려던 그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오히려 그는 조선신탁 설립과정에서 자신이 서서히 재계의 중심으로 부터 배제되는 것을 느끼고 일종의 배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부터 신탁회사의 건에 대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성취를 염원해 왔다. 재계의 惡況에도 불구하고 東奔西走하여 바야흐로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 난관을 헤치고 보조금도 그 결말이 나게 되었고, 주식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그런데 막상 일이 거의 다 해결되어 그 결말을 보게 되자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 배제되고 있었다. 나 한 사람의 이해타산을 따져 어떠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단지 나는 명예사장이 되지만, 전무는 내지에서 信託通인 사람을 용빙 채용한다던가, 총독부 혹은 민간에서 채용한다던가 하여 실제 사무를 담당케 하고, 표면적인 것만은 조선인의 회사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는 이미 작년 東上 중에 총독과 米山씨 및 井上準之助씨 외 2,3인과의 사이에 내밀히 이야기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sup>141)</sup>

그러나 한상룡은 그냥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의 지위 상실이 개인적인 몰락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완용과 한창수로부터 일제하 전 기간을 통해 이어지는 그들 가계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위태로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주로 관심을 돌리기도 하고, 전시하 총력동원체제에 적극 협력하면서 각종 단체를 이끄는 등의 정치적 활동으로 기울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기업활동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는 조선인 자본가와 일본인 자본가들의 이해와 요구를 총독부에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한상룡은 1930~1940년대에도 여전히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무진회사 등의 금융관련 회사와 은행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 은행과 회사들이 일제하의 不動의 금융전문가였던 그의 경험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시기 그의 기업활동중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의 대륙침략과 관계 있는 사업에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1920년대의 일련의 공황과 1929년의 세계대공황으로 피폐화된 한국 경제는 만주

140) "朝鮮信託 創立의 完成", 「東亞日報」, 1932. 12. 17, 中村萬太郎 [21], 58쪽.

141) 韓翼教 編 [3], 355~356쪽.



〈표 5〉 1930~1940년대에 韓相龍이 관계한 회사

회사명	연도	업종	자본금(원)	참여형태	대표자	비고
朝鮮米穀倉庫(주)	1930	창고업	100(25)	발기인	松井房治郎	朴榮喆 金尙燮
朝鮮都市經營(주)	1931	부동산	50(12.5)	발기인/감사역	青木大三郎	위탁매매 및 경영
朝鮮信託(주)	1932	신탁업	1000(250)	발기인/회장	韓相龍	谷多喜磨(사장)
朝鮮麥酒(주)	1933	양조업	600(150)	발기인/감사역	大橋新太郎	
北鮮製紙化學工業(주)	1935	제조업	2000(500)	발기인/감사역	藤原銀次郎	
鮮滿拓殖(주)	1936	拓殖	2000(800)	설립위원	二宮治重	鮮滿拓殖會社令
朝鮮中央無盡(주)	1937	무진업	500(125)	발기인	古庄逸夫	
朝鮮林業開發(주)	1937	林業	2000(200)	설립위원/감사	矢島杉造	朝鮮林業開發(주)令
每日新報社	1938	인쇄업	100(100)	발기인	崔麟	
東滿洲産業(주)	1936	투자업	100(100)	감사역(1938)	中村直三郎	
朝鮮運送(주)	1930	운수업	700(606.5)	취체역(1938)	村上義一	
朝鮮工作(주)	1939	제조업	100(25)	회장	韓相龍	河駿錫의 부탁
和信貿易(주)	1939	무역업	275(68.75)	발기인	朴興植	
東興銀行	1935	금융업	100(50)	고문(1939)	方奎煥	
朝鮮工營(주)	1939	부동산	100(50)	발기인/취체역	木村昌薰	대표상무: 李敏求
南滿紡績(주)	1939	제조업	1000(500)	발기인/상담역	金季洙	
東華産業(주)	1940	무역업	200(50)	설립위원장/회장	韓相龍	
京仁企業(주)	1940	부동산	200(100)	발기인	夏山茂	
和信商事(주)	1941	상업	500(131.25)	감사역	朴興植	

자료: 韓相龍氏還曆紀念會 [4], 韓翼教 編 [3], 中村資良 [23] 각 연도, 滿洲帝國特設 滿洲事情案內所 [30].

사변을 계기로 하여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일본과 총독부는 農業中心의 한국 경제를 農工並進으로 재편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만주봄'이 형성되어 그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던 1932년의 경기는 金再禁止와 만주사변의 해결로 상당히 희망적이었다. 이에 1932년 조선상공회의소는 경제적 진출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만주국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실업구락부에서는 滿蒙經濟座談會(1932. 4)와 鮮滿貿易座談會(1932. 5. 27)를 개최하여 만주의 '상품시장화'와 '鮮滿의 무역 증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sup>142)</sup> 조선인 자본가들의 희망은, 만주국의 성립과 함께 만주가 일본의 통치하에 확실히 놓여지는 것이었다. 한상룡도 이런 분위기에 고무되어, 만주 진출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조선인의 지위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143)</sup>

142) 「朝鮮實業俱樂部」, 10(6), 1932. 6. 31~36쪽, 10(7), 1932. 7. 41~65쪽.

중국과 만주에 대해 오랫동안 주목해 온 터였기에,<sup>144)</sup> 그는 만주분이 한창일 때 만주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투자상담과 자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고, 총독부와의 교감 속에 그 자신이 직접 기업설립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鮮滿拓殖會社의 경우는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의 계획 및 감독하에 자본금 3,000만 원으로 '鮮滿拓殖會社令'에 의해 1936년에 설립된 국책회사였는데,<sup>145)</sup> 한상룡은 이 회사의 설립위원으로 임명되었다.<sup>146)</sup> 서울에 본사를 두고 新京, 奉天, 하얼빈, 龍井에 지사를 각각 설치하여 15개년계획하에 16만 호 80만 명의 이민을 목표로 한<sup>147)</sup> 이 회사는 1936년 일본대장성이 조선총독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보조금을 36만 원 책정하기도 한 회사였다.<sup>148)</sup> 또한 그는 1936년에 만주 굴지의 사업가 中村直三郎<sup>149)</sup>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東滿洲産業株式會社의 설립에 참여하였다가 1938년에는 그 감사역에 취임하였고, 1939년 5월에는 1935년 7월에 경성의 유명한 실업가 方奎煥에 의해 설립된 東興銀行의 고문이 되기도 하였다.<sup>150)</sup>

한편,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형성된 戰時體制<sup>151)</sup> 조선인 자본가들은 일본독점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일제의 비호 아래 육성되었다. 그들은 서로 회사·기업소의 설립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sup>152)</sup> 특히 이들은 거의 모두가 實業俱樂部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實業俱樂部를 통하여 정치

143) 1931년 12월 실업구락부 예회에서 한상룡은 만주사변의 해결과 함께 '朝鮮人으로서 利益均霑의 恩惠를 입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內鮮融화는 곧 利害一致'라고 하였다. 韓相龍, "挨拶", 「朝鮮實業俱樂部」, 10(1), 1932. 1. 5쪽.

144) 그는 1912년에 滿韓實業協會의 명예회원 및 평의원장에 피선된 이래, 줄곧 중국과 만주를 주목하였다. 특히 1916년 일본 내지와 대만시찰과 1917년에 있었던 중국과 만주시찰은 그의 이러한 관심이 더욱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木村健二 [114], 韓相龍 [1], [2].

145) 金善一 [55], 46~47쪽.

146) 鮮滿拓殖株式會社는 만주국 新京의 滿鮮拓殖公司를 자매회사로 하였으며, 중역에는 각 방면의 유력자들이 임명되었다. 총재에는 육군중장인 二宮治重가 임명되었으며, 이사에는 渡邊豐日子(前총독부학무국장), 堤永市(前한성은행전무취체역), 木村通, 岡田猛馬, 渡邊得司郎(감사, 東拓 新京지점장), 高元勳(감사, 중추원참의·前전북도지사)이었다. 中村資良 [22], 278쪽, 阿部薰 [24], 318쪽.

147) 「朝鮮實業俱樂部」, 131, 1935. 9. 34쪽(財界片片).

148) 韓相龍, "昭和十年の回顧と新年の前望", 「朝鮮實業俱樂部」, 135, 1936. 1, 21~22쪽.

149) 中村直三郎은 山口縣 출신으로 22세에 宇部炭坑을 경영하고 米界 등에서도 활약한 인물이다. 오랫동안 北鮮과 만주에서 활약한 실업가로 '北鮮開發의 恩人'이라 불렸으며, 東部商工聯合會長, 雄基商工會頭를 역임하였으며, 1937년 현재 東滿洲産業株式會社 외에 다수의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었다. 阿部薰 [24], 318쪽, 滿洲帝國特設 滿洲事情案内所 編 [29], 78쪽.

150) 東興銀行은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점을 圖們에 두었다. 방규환은 동흥은행 외에도 1944년에 박흥식에 의해 설립된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의 발기인 및 대주주(1만 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등 일제의 대륙침략과 전쟁수행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었다. 滿洲帝國特設 滿洲事情案内所 編 [29], 77~78쪽, 정병욱 [93], 218쪽.

151) 小林英夫 [116].

152) 천석담 외 [91], 327~328쪽, 서중서 [70].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sup>153)</sup> 따라서, 한상룡의 조선인 자본가들 사이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하였고, 일본과 총독부로서는 그를 계속 중용하여 이른바 전시체제로의 편입을 통해 체제유지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상룡은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편승하여 자신이 이끌고 있던 實業俱樂部를 전시체제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실업구락부를 보다 힘 있는 단체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가 1940년 초에 총독부를 방문하여 실업구락부 창립20주년기념사업에 대한 구상을 보고하고 지지와 원조를 부탁한 이면에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 이 때 그는 소위 '日滿支블력' 결성이라는 國策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일본과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소위 '役割分擔論'에 입각하여 장래 '조선 산업경제력의 적극적 개발'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을 때, 실업구락부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sup>154)</sup> 따라서 그는 실업구락부에 보다 확고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社團法人化를 계획하고,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하여 회관건축자금의 조성을 제안한 것은 이때문이었다.<sup>155)</sup> 그는 한국 경제의 중요 인물들이 대거 망라된 實業俱樂部가 이른바 '兵站基地化政策'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단체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단체의 首長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미 많은 것을 상실한 그는 단체를 통해 그 영향력을 손에 쥐고 싶어하였던 것이다.<sup>156)</sup>

그는 戰時에 그들의 정책에 협력하고 각종 전쟁관련 단체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1937년 7월 관동군사령부 사무총탁(칙임관 대우)으로 임명되어, 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실업구락부 및 개인 명의로 국방헌금을 하였으며, 1938년 6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준비회의 연맹이사, 7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연맹 참여로 위촉되었다. 1939년 4월에는 이 연맹의 규약 개정에 따라 이사 및 평의원이 되었다가,

153) "會員名簿", 「朝鮮實業俱樂部」, 162, 1938. 4.

154) "금후 각 방면의 후원에 의해 조선실업구락부가 일층 발전하여 日滿鮮연락의 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韓相龍, "戰時下にある内地を廻りて", 「朝鮮實業俱樂部」, 159, 1938. 1. 兒玉秀雄, "朝鮮實業俱樂部 創立二十周年を祝す", 「朝鮮實業」, 18(3), 1940. 3. 4쪽.

155) 이 때 朝鮮實業俱樂部20周年記念事業實行委員會의 위원으로는 회장과 부회장 및 고문 賀田直治 외에 韓翼敎, 市野澤西之助, 鈴木文次郎, 平賀三男, 邊相吳, 森武彦, 崔楠, 具昌祖, 中間高州가 선임되었으며, 그들의 회의로 결의된 사업은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① 기념대강연회를 개최한다. ② 기념3월특집호를 발행한다(표지의 體裁를一新하고 조선을 알리기 위해 「朝鮮實業」으로 바꾼다). ③ 사단법인조직으로 바꾼다. ④ 實業成年育英事業을 확장한다. ⑤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한다. ⑥ 회관건축자금을 조성한다. "本會彙報", 「朝鮮實業」, 18(3), 1940. 3. 151쪽.

156) 파냐 이사악코브나 샤브쉬나 [110], 1996. 30쪽. 샤브쉬나는 일제 말기 조선인 자본가 중 대표적인 인물로 韓相龍을 포함한 6명을 언급하였다. 이 때 그녀는 한상룡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단체를 한손에 거머쥔 한상룡 집단'이라고 표현하여 그의 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평가하였다.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칭되면서 이사로서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웬만한 친일단체에는 간부로서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였다.<sup>157)</sup>

한상룡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경성일보 주최로 부민관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시국하 반도인의 임무'라는 演題로 강연한 것을 비롯하여, 총독부 중추원 참의로서 각종 시국강연회 및 담화를 통하여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고 전쟁협조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sup>158)</sup>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이 칙령 제95호로 공포되고, 동년 4월 3일자로 시행을 보게 되자 "제국신민이 된 긍지를 深厚히 하고 더욱 盡忠報國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여 지원병제도의 실시에 대한 감격을 피력하였고, 이에 대한 축하행사를 위한 실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38년 10월에는 인천, 안양, 김해, 통영, 안동, 상주, 진주 등지에서 국민정신총동원 강화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1939년 6월에는 총독부 도서관에서 '時局雜感'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중추원 참의들과 함께 육군지원병훈련소에 가서 지원병들에 대한 격려 강연을 하였다.<sup>159)</sup> 임전보국단 결단 이전인 1941년 10월에는 각 도를 순회하면서 강연하였고, 1942년 5월에는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기념 강연을 하는 등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려는 일제의 사전 여론 조성작업에 민간인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였다.<sup>160)</sup> 이 해 10월에도 그는 '광영의 징병제를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學兵의 전쟁 동원에 대해서도 '至誠至純의 顯現'이라고 미화하면서 전쟁 참여를 독려했다.<sup>161)</sup> 1943년 8월 1일, 징병제 시행일을 당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여 축하하였으며, 1943년 8월 말에는 징병기념사업실행위원 12명 중 1인으로 선정되었다.

“반도에 불타는 애국심과 赤誠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躍進 반도의 통치사상에 획기적인 징병제도가 실시되었다. 금일 반도청년이 모두 폐하의 股肱이 되고 국가의 干城이 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은 무상의 영예로서 참으로 鴻恩에 대하와 공구감격할 뿐...아버이나 아들이나 자진하여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62)</sup>

157) 자세한 그의 전시하 친일 경력은 김경일 [50], 132쪽, [51] 참조.

158) 林鍾國 [89], 201~202쪽.

159) 韓翼教 編 [3], 392·394·414·434쪽.

160) 또한 1942년 5월에 징병제 실시가 일본 閣議에서 결정되었을 때도 그는 이에 대해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아침이 온 것이며, ...황국신민으로서 나아갈 날은 오고야 만 것이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다.”라고 평가하였으며, 5월 16일 부민관에서 열린 매일신보 주최의 징병제 감사연설회에서 '징병제 실시 발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기도 하였다. 林鍾國 [89], 147쪽.

161) 韓相龍, “學兵出陣訓”, 「朝光」, 1943, 12, 54쪽.

162) 林鍾國 [89], 137~154쪽. 실행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은 김연수, 박홍식, 윤치호, 이성근, 한규복, 한상룡 등의 조선인파 高宮太平 등의 일인 6명이었다.

종전의 막바지인 1945년 5월에는 '천년의 운명이 판정될 흥망의 결전은 금후' 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하였다.<sup>163)</sup> 이렇듯 한상룡은 박홍식, 박영철 등 다른 거물 급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전시체제하에 편입되어 그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였으며, 전시 말에는 다른 어떤 인사들보다 앞장서서 일본의 전쟁수행을 '物心兩面'으로 지원하였다. 그가 이렇게 '거의 일본인과 다름없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한국인처럼' 활동한 데에는 이미 한국인과 일본인이 물에 물을 섞은 듯 하나로 융화되어 같은 국민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164)</sup>

“특히 명치 9년(1876)이래 京城에는 內鮮 兩民族이 個個別別的으로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一國人이 되었습니다. 서로 국민성을 融合하여,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며, 朝鮮人은 당연히 帝國臣民이 되고, 先覺者의 地位에 있는 內地人은 朝鮮人을 충분히 指導誘掖하여, 물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물에 물을 섞는 듯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sup>165)</sup>

## V. 結 語

韓末·日帝下 韓相龍의 기업활동과 정치경제적 인식은 개항 이후 전개된 근대적 기업가의 성장에 하나의 독특한 유형을 제시해 준 사례였다. 본고를 통해 살펴본 한상룡의 기업활동의 특징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다.

한상룡은 1903년 한성은행에 우충무로 실업계에 입문하였으며, 이후 이재완이라는 당대의 거물과 이완용, 이운용, 한창수로 대표되는 가문을 배경으로 1907년에 경성상업회의소 회두에 추천될 정도로 실업계의 중진으로 성장하였다. 이 때 그는 일제에 의해 강제된 한국 경제의 식민지적 재편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 편입되어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한성수형조합, 한성농공은행, 東拓, 한국은행 등의 국책은행

163)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112], 139쪽.

164) 그는 '兵役과 共學制'가 실시된 후 參政權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참정권운동으로 말하면 國民協會系의 운동이 있어 온 지도 이미 10여 년 衆議院에서 청원체택이 되어지기도 이미 여러 차례인데 그 운동이 적절한 것이다 합은 조선사람측이나 정부측이나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希望으로야 今日이라도 곧 되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실시될 기운이 되었다고 볼 수 없겠지요...나는 獨自의 議會創設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줄로 생각하므로 아주 內鮮一體의 견지에서 本州에 사는 內地人이 가지듯 朝鮮人도 그와 똑같은 衆議院에 대한 選舉權이 장래에 가지어 지기를 바랍니다.”, 韓相龍, “制度的 改革을 要望”, 「三千里」, 1938. 8.

165) 韓相龍, “京城의 今昔”, 「朝鮮實業俱樂部」, 163, 1938. 5.

과 회사에 설립위원이나 발기인으로 일제의 경제침략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그의 활동의 사상적 배경에는 일본을 모델로 식산흥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문명개화의 흐름이 있었고, 그런 그의 생각은 伊藤博文·目賀田種太郎·澁澤榮一의 후원과 지도를 받으면서 더욱 굳어졌다.

1910년 9월 전무취체역이 된 그는 한일합방 이후 한성은행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여 1923년에는 두취로 취임하였다. 1920년 3월에는 다수의 조선인 실업가들과 함께 조선실업구락부를 창립하고 일제 말까지 회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그는 한성은행을 기반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각종 은행과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일본 자본을 국내에 유치하여 그들의 對韓 투자를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고, 조선인 자본가들의 회사 설립과 경영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원 대상은 일본의 회유대상인물(박승직, 백운수 등)이나 친일적인 기업인에 국한되었다. 1928년에는 한성은행의 경영악화를 책임지고 두취직에서 물러나면서 재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반감되었다.

한상룡은 1932년 신설된 조선신탁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이 회사의 사장에 취임하여 재기를 시도하였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한성은행에서의 경영 실패가 원인이었다. 이후 그는 1932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형성된 소위 '만주봄'이라는 해외투자 열과 일본의 대륙 경제침략에 편승하여 지위를 유지해 나갔으나 이전과 같은 발언권과 영향력은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형성된 전시체제에 편입되어 적극적인 전쟁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재계의 중심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비롯하여 일본의 식민통치에 앞장섰던 그의 집안 전체와 주변인들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식민지 예속자본가의 전형'이었다.

한상룡은 또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제하의 다른 기업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韓相龍은 일제하의 다른 자본가들과는 달리, 한성은행·조선생명·조선신탁(취체역회장) 등 금융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하였고, 일생을 통해 무려 300여 개의 각종 은행·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하기도 한, 그리하여 '半島 財界史의 縮圖'<sup>166)</sup>라는 평가를 받은 전문경영인이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그는 한국의近代 企業家史에서 독특한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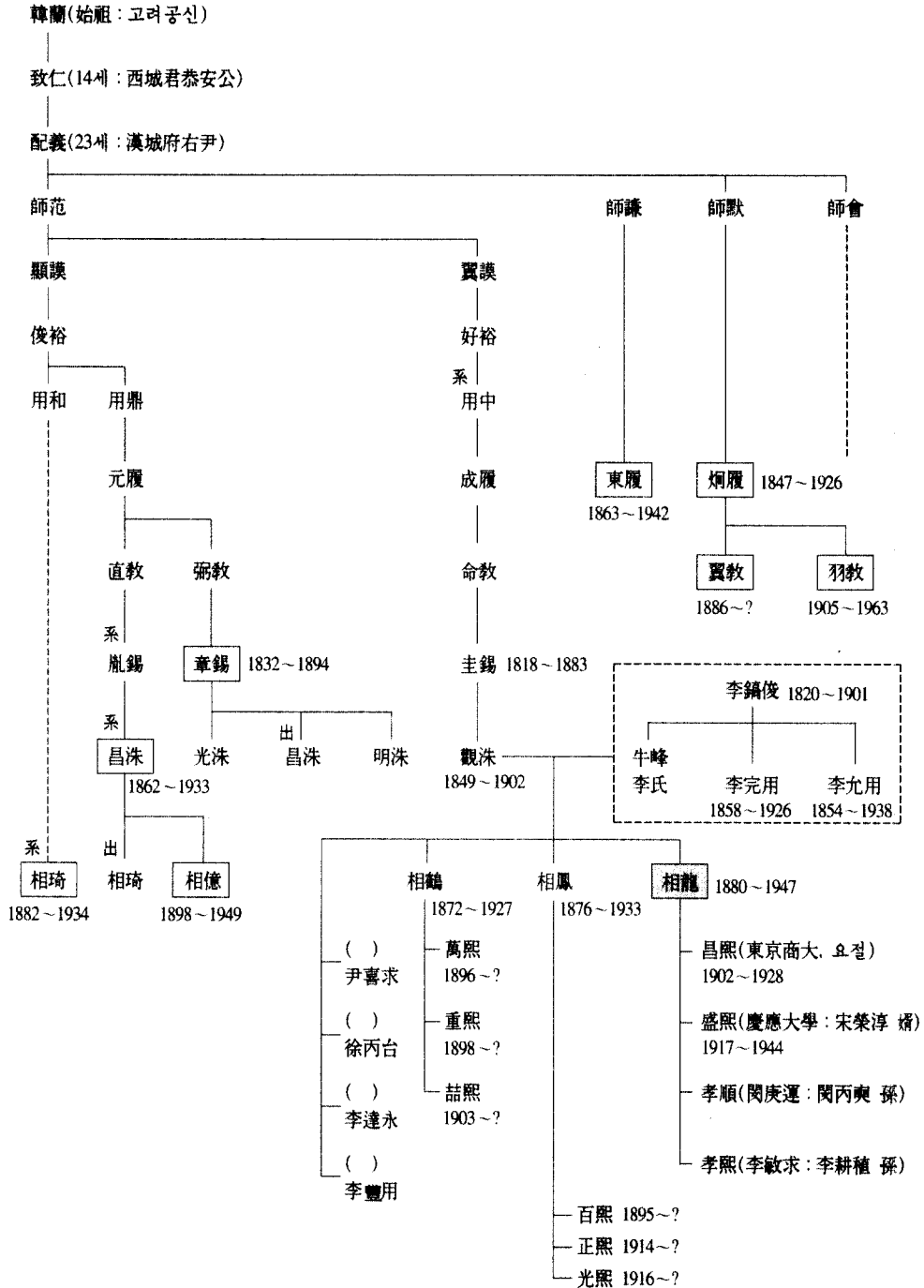
둘째, 그는 자신이 경영한 기업의 수준을 넘어서 한국 재계 전체를 조망하면서 직접 朝鮮實業俱樂部라는 경제단체를 설립하여 조선인 실업가들을 조직하고, 그를

166) 俞萬兼, 「朝鮮財界의 重鎮」, 韓賢教 編, [3], 501~502쪽.

통해 총독부의 협조를 이끌어 낸 인물이었다. 이는 다른 기업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물론 漢城銀行의 전무취체역과 頭取라는 사실이 1920년 朝鮮實業俱樂部의 설립과 운영을 가능케 하였지만, 발기인으로 참여한 19명의 주요 인물로 대표되는 한국인 실업가들에 대한 그의 장악력은 총독부로 하여금 그를 '반드시 필요한' 인물로 여기게 하였다.

셋째, 金性洙·金季洙 형제나 閔氏家, 朴興植, 張稷相, 玄俊鎬 등과는 달리 거대 기업이나 대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일제하 재계에서 上記 자본가들 이상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상룡과 총독부 사이의 밀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문을 배경으로 한 총독부의 비호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韓相龍의 植民地的 性格'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다.

<부표> 韓相龍世系圖(淸州韓氏 泰安公派)



자료: 『暢楠壽章』, 35쪽; 『淸州韓氏第六校大同族譜』, 1·3권.



◆ 참고 문헌 ◆

I. 자 료

〈한상룡의 저술〉

1. 韓相龍, 『内地及臺灣視察記』, 1916.
2. \_\_\_\_\_, 『南北支那及滿洲視察報告書』, 1917.
3. 韓翼敎 編, 『韓相龍君を語る』, 韓相龍氏還曆紀念會, 靑雲文化社, 1941.
4. 韓相龍氏還曆紀念會, 『楊楠壽章』, 1940.
5. 朝鮮實業俱樂部, 『朝鮮實業俱樂部』(「朝鮮實業」)에 실린 기사.
6. 각종 신문, 잡지에 실린 기사.

〈기타자료〉

7. 高台鎭 編, 『韓國商業銀行七十年史』, 한국상업은행, 1969.
8. 貴田忠衛,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京城: 朝鮮新聞社, 1936.
9. 大村友之丞, 『朝鮮貴族列傳』, 朝鮮研究會, 1910.
10. 牧山耕藏 編, 『朝鮮紳士名鑑』, 1911,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14 : 社會篇』, 아세아문화사, 1985(영인본).
11. 伏見寬次, 「조선신탁주식회사」, 『조선근대사료연구집성』, 제4호, 우방협회, 1961.
12. 四方博 編, 『京城商工會議所二十五年史』, 京城商工會議所, 1940.
13. 細井肇, 『鮮滿の經營』, 自由討究社, 1921.
14. 西四辻公堯 編, 『魚潭少將回顧錄在韓苦心錄金亨燮大佐回顧錄』, 東京: 高麗書林, 1930, 1981(영인본).
15. 松岡洋右, 『滿鐵を語る』, 第一出版社, 1937.
16. 松本重威, 『男爵目賀田種太郎』, 靑雲文化社, 1938.
17. 水田直昌·土屋喬雄, 『朝鮮統治とその終局』, 우방협회, 1962.
18. 李如星, 『數字朝鮮研究』, 4, 世光社, 1933.
19. 長谷井千代松 編, 「第一銀行五十年小史」, 株式會社 第一銀行, 1926.
20. 田中麗水 編, 『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부산일보사, 1936.
21. 中村萬太郎, 『朝鮮信託株式會社十年史』, 朝鮮信託株式會社, 1943.
22.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洋經濟時報社, 각 연도.

23. 阿部薰,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1935.
24. \_\_\_\_\_, 『朝鮮都邑大觀』, 民衆時論社, 1937.
25. 京城日報社 編, 『朝鮮年鑑』, 1934.
26. 국사편찬위원회, 『大韓帝國官員履歷書』, 탐구당, 1972.
27. \_\_\_\_\_,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 1996.
28. \_\_\_\_\_, 『高宗時代史』, 1967~1972.
29. 滿洲帝國特設 滿洲事情案内所, 『在滿主要會社要覽』, 東京大阪三省堂, 1939.
30. 生命保險協會, 『生命保險史料』, 제1권, 1990.
31.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교회기념丹菴李珣奭回顧』, 1984.
32. 朝鮮信託協會, 『朝鮮信託法規』, 1932.
33. 조선은행, 『鮮滿經濟十年史』, 1919.
34. 朝鮮銀行史研究會, 『朝鮮銀行史』, 東洋經濟新報社, 1987.
35. 조선총독부, 『産業調査委員會議事速記錄』, 1922.
36. \_\_\_\_\_, 『朝鮮産業經濟調査會會議錄』, 1936.
37. 조선총독부중추원, 「제18회 中樞院會議參議答申書」, 1937.
38. 조흥은행, 『朝興銀行百年史』, 1997.
39. 淸州韓氏大同族譜編纂委員會, 『(六校丁卯)淸州韓氏大同族譜』, 1·3, 1993.
40. 한일은행, 『韓一銀行60年史』, 1992.
41. 『韓國貨幣整理報告書』, 1910(아세아문화사,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경제편⑩, 1988).
42. 『故市原盛宏記念』, 출처미상, 1915.
43. “漢城銀行 整理案 成案”, 『金融と經濟』, 106, 1928.
44. 「朝鮮に於ける信託法制定に關する答申書」, 출처미상, 1930.
45. 『CD-ROM 高宗純宗實錄』, 1998.

## II. 연구논저

46.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 일조각, 1970.
47. \_\_\_\_\_, 『植民地金融政策の史的分析』, 東京: 御茶の水書房, 1972.
48. \_\_\_\_\_, 『韓國經營史研究』, KMA 한국능률협회, 1975.
49. 具仙姬, “福澤諭吉과 1880年代 韓國開化運動”,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82.

50. 김경일, “韓相龍—식민지 예속경제화의 침병”, 『친일파99인』(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돌베개, 1993.
51. \_\_\_\_\_, “韓相龍—친일 예속자본가의 전형”, 『韓國學報』, 71(여름), 1993.
52. 金度亨, 『大韓帝國期の 政治思想研究』, 지식산업사, 1994.
53. 김동운, “한국재벌의 초기 형성 과정—斗山그룹의 1대 朴承稷商店, 1925~1945년”, 『경제학연구』, 44(3), 한국경제학회, 1996.
54. 金昞哲, 『人物銀行史』, 上, 銀行界社, 1978.
55. 金善一, “植民地的 資本家の 形成—1930年代 朝鮮總督府와 朝鮮人 資本家集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56. 金泳謨, 『韓末支配層研究』, 한국문화연구소, 1972.
57. 金容達, “朝鮮農會(1910~1926)의 組織과 事業”, 『國史館論叢』, 64, 1995.
58. 金容燮, 『증보판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韓末·日帝下の 地主제와 農業問題』, 서울: 지식산업사, 2000.
59. 金仁鎬, “日帝의 朝鮮工業政策과 朝鮮人資本의 動向(1936~1945)”,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60. 김학민 외, 『親日派 罪狀記』, 학민사, 1993.
61. 魯仁華, “大韓帝國 時期 官立學校 教育의 性格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62. 都冕會, “갑오개혁 이후의 근대적 금융기관”, 『국사관논총』, 77, 국사편찬위원회, 1997.
63. 박영석, “李完用研究—親美·親露·親日派로서의 행위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2, 1992.
64. 박영재, “近代日本の 아시아 認識”, 『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侵略』, 일조각, 1986.
65.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관료 연구』, 학민사, 1999.
66.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7.
67.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68. 裴永穆, “漢湖農工銀行에 관한 研究”, 『사회과학연구』, 9(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69. 徐光云, 『韓國金融百年』, 創造社, 1972.
70.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해방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역사비평사, 1991.

71. 孫禎睦, “會社令研究”, 『한국사연구』, 45, 1984.
72. \_\_\_\_\_,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 — 갑오경장~일제강점기』, 一志社, 1992.
73. 손정연, 『撫松 玄俊鎬』, 전남매일신문사, 1977.
74. 宋京垣, “韓末 安駟壽의 政治 經濟活動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75. 安龍植, 『대한제국관료사연구』, III~IV.
76. 오미일, “韓末~1920年代 朝鮮人 資本家層의 形成 및 分化와 經濟的 志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77. 오진석, “일제하 한국인 자본가의 성장과 변모 — 朴興植의 和信百貨店 經營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78. 尹根鎬, 『韓國會計史研究』, 재단법인 韓國研究院, 1984.
79. 윤석범 외, 『韓國近代金融史研究』, 세경사, 1996.
80. 尹在杰, “日帝下朝鮮人 貴族列傳”, 『月刊 朝鮮』, 1983, 신년호.
81. 李炳天, “舊韓末 湖南鐵道敷設運動(1904~1908)에 대하여”, 『경제사학』, 5, 1981.
82. 이승렬, “1930년대 전반기 일본군부의 대륙침략관과 ‘조선공업화’ 정책”, 『國史館論叢』, 67, 1996.
83. 李元衡, 『牛峰李氏世譜』, 乾, 1975.
84. 이한구, 『日帝下韓國企業設立運動史』, 靑史, 1989.
85. 임대식, “이완용의 변신과정과 재산축적”, 『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
86. 任城模, “1930年代 日本의 滿洲支配政策 研究 — ‘滿洲國協會’를 中心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87. 林鍾國,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88. \_\_\_\_\_,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89. \_\_\_\_\_, 『日本軍의 朝鮮侵略史I』, 일월서각, 1988.
90. 田剛秀, “植民地 朝鮮의 米穀政策에 관한 研究 — 1930~1945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91. 전석담 외(김인호 역), 『조선근대사회경제사』, 자작아카데미, 1998.
92. 전우용, “19世紀末~20世紀初 韓人 會社 研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93. 정병욱, “日帝下 朝鮮殖産銀行의 産業金融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94. 鄭然泰, “日帝의 韓國 農地政策(1905~1945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95. 정운현,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 새로 밝혀 다시 쓴 친일인물사』, 개마고원, 1999.
96. 趙璣濬, “典型的 植民地 企業人 韓相龍”, 『月刊中央』, 1970년 7월호.
97. \_\_\_\_\_, 『韓國企業家史』, 박영사, 1973.
98. 趙宰坤, “1902·1903년 日本 第一銀行券 유통과 한국상인의 대응”, 『韓國民族運動史研究』(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Ⅱ), 1997.
99. 趙恒來 편저, 『日帝의 對韓侵略政策史研究—日帝侵略要人을 중심으로』, 玄音社, 1996.
100. 주요한, 『秋汀李甲』, 大成文化社, 1964.
101. 주익중, “日帝下 朝鮮人會社資本의 動向”, 『經濟史學』, 15, 1991.
102. \_\_\_\_\_, “日帝下 平壤의 메리야스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03. 주진오, “19세기 후반 開化 改革論의 構造와 展開—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104. 韓百興, 『舊韓末 民族銀行生成史』, 도서출판시나리오알타, 1996.
105. 허수열, “식민지경제구조의 변화와 민족자본의 동향”, 『한국사』, 14, 한길사, 1994.
106. 洪性讚, “韓末·日帝下 全南지역 한국인의 銀行 설립과 경영—光州農工銀行·湖南銀行의 사례를 중심으로”, 『省谷論叢』, 30, 1999.
107. \_\_\_\_\_, “韓末·日帝初 在京 일본인의 銀行 설립과 경영”, 『韓國史研究』, 97, 한국사연구회, 1997.
108. \_\_\_\_\_, 『韓國近代農村社會의 變動과 地主層』, 지식산업사, 1992.
109. 黃明水, 『企業家史研究』,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2.
110. 파나 이사악꼬브나 샤브쉬나(김명호 역), 『1945년 남한에서』, 한울, 1996.
111. 피터 두으스(金容德 역), 『日本近代史』, 지식산업사, 1995.
112.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99인』, 2, 돌베개, 1993.
113. 古野直也(김해경 역), 『조선군사령부 1910/1945』, 대왕사, 1997.
114. 木村健二, “近代日朝 ‘關係’ 下의 在朝日本人—朝鮮實業協會의 組織と活動을 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3, 1986.
115. 梶村秀樹, “日本帝國主義下의 朝鮮ブルジョアジ의 對應”,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5, 1967, 1969(『韓國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1983).
116. 小林英夫, “총력전체제와 식민지”, 『日帝末期 파시즘과 韓國社會』(최원규

- 편), 청아, 1988.
117. \_\_\_\_\_, “會社令研究ノート”, 『海峽』, 3, 1975.
118. 永原慶二 編(박헌채 역). 『日本經濟史』, 지식산업사, 1983.
119. 屋喬雄, 『澁澤榮一傳』, 東洋書館, 1955.
120. 井上宏生, 『巨いなる企業家, 澁澤榮一の全研究』, PHP연구소, 1983.
121. 日本經濟史研究會 編, 『近代日本人物經濟史 上・下』, 동양경제신보사, 1955.
122. Eckert, Carter J., *Offspring of Empire :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123. McNamara, Dennis L.,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1910 ~ 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